이투데이

ECONOMY TODAY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etoday.co.kr

제3469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투자를 뚝딱!
깨비증권
KB증권

코스피(23일) 2602.01(+8.64P) ▲
코스닥 755.12(+6.79P) ▲
환율(원·달러, 15시30분) 1335.90(+6.80원) ▲
금리(국고채 3년물) 2.864%(+0.026%P) ▲



SK하이닉스, 리눅스에 'CXL 최적화 솔루션' 탑재 2



네이버,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 수출 청신호 12

小단지 합동 재건축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본격 레이스… 27일까지 접수

주민동의 확보 총력

강남·판교 인접 사업성 높은 분당
'최대배점' 동의율 95% 이상 만점
버스광고·현수막 통해 막판 공세
점수 높이려 신탁사 등 손잡기도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선도지구 공모 접수가 시작되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들의 막바지 경쟁이 치열하다. 선도지구 예상 물량이 1만 가구에 육박하는 분당 신도시에선 주민 동의율 만점에 해당하는 95%를 확보하기 위한 눈치싸움이 뜨겁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가 이날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지역별 선도지구 규모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다.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선정할 수 있는 물량(신도시별로 1~2개 구역)까지 더하면 올해 선정될 선도지구 규모는 최대 3만9000가구 규모로 추산된다. ▶관련기사 4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선정 기준은 △주민동의 여부(6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참여 주택 단지 수 10점·가구 수 10점) △사업 실현 가능성(가점 최대 5점) 등이다. 이 중 관건은 주민동의율로, 평가 점수 상위권에 들기 위해선 최소 9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부동산 신탁사와 업무협약(MOU)을 맺거나 공공과 맞손을 잡은 단지도 있다. 분당에선 파크타운, 무지개마을 11·12단지, 장안타운 빌라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시범1구역(시범삼성한신·한양)은 KB부동산신탁과 MOU를 맺었고, 양지마을 통합 재건축은 한국토지신탁, 까치마을 1·2단지는 교보자산신탁 등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규모 단지 중에선 참여 가구 수(15점) 만점을 확보하기 위해 합동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1기 신도시 중 열기가 가장 뜨거운 곳은 단연 분당 신도시다. 분당은 평균 용적률이 200% 미만으로 낮은 데다 강남·판교와 인접해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성남시는 선도지구 평가 기준에서 주민 동의율 항목 만점(60점) 기준을 95%로 정했다.

1기 신도시 연합회 측에 따르면 이번에 최종 선도지구 공모에 나설 단지는 분당에서만 15~20곳에 이른다. 이 중 대략 3~4개 단지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지난 수개월 동안 조합 집행부가 집집마다 방문하는 등 동의율 만점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분위기다. 홍보전도 뜨겁다. 마을 버스 광고는 물론 기발한 용어를 담은 현수막을 만들어 설치하는 등 '총공세'에 나선 상태다. 이종석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합회 회장은 "이번에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않으면 재건축을 언제 할 수 있을지 확실한 기약이 없는 만큼 마감일인 27일까지 똘똘 뭉쳐서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리 기자 truth@

삼성·TSMC, UAE에 반도체공장 추진… 중동 AI경쟁 격화



하늘서 떨어지는 北쓰레기
23일 서울 용산구 상공에서 북한이 띄워 보낸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가 터져 내용물이 떨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연합뉴스

WSJ "양사 경영진 현지방문 논의"
국부펀드, 1000억달러 투입 전망
삼성전자 "투자 현황 확인 어려워"

사우디도 엔비디아 협력차 美접촉

중동에서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반도체 확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엔비디아 첨단 AI 반도체를 받기 위해 미국과 접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 아랍에미리트(UAE)가 자국 내 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삼성전자, TSMC와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관련기사 3면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TSMC 고위급 임원들이 최근 UAE를 방문해 대만에 있는 가장 크고 최첨단인 시설과 동등한 규모의 공장 단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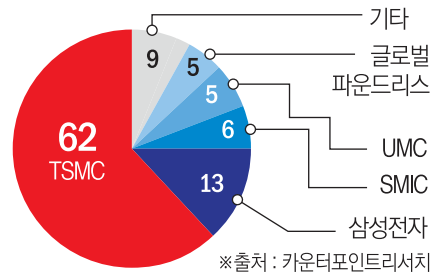
동시에 WSJ는 "삼성전자도 향후 몇 년 안에 UAE에 대규모 신규 반도체 제조 공장을 세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고위급 임원들이 최근 UAE를 찾아 그 가능성을 논의했다"면서 "UAE가 양사와 논의한 것은 주로 AI 붐에 따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WSJ 보도에 대해 "투자 관련 현황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사업 자금은 UAE 정부가 지원하고 사업 추진은 국부펀드인 무바달라가 맡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렇게 완성되는 반도체 산업단지 규모는 여러 공장 건설을 포함해 총 1000억 달러(약 13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UAE에 실리콘 웨이퍼를 헹구는 데 필요한 정제수가 부족하다는 점과 기존 인력이 없어 기업들이 엔지니어를 현지에 직접 파견해야 한다는 점 등이 장애물로 꼽힌다.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점유율
(단위 : %) ※ 2분기 기준



※출처 : 카운터포인트리서치

그런데도 삼성전자와 TSMC가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미국, 유럽, 동아시아 각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주도되는 지금의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 성장 시대에 새로운 물결을 가져올 수 있다고 WSJ는 짚었다.

특히 사우디가 중동 AI 인프라를 선점하기 위해 분주한 상황에서 UAE까지 속도를 낸다면 반도체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달 초 미국 매체 세마포어는 소식통을 인용해 "첨단 반도체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대사우디 수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사우디와 미국은 이달 사우디가 주최한 '글로벌 AI 서밋(GAIN)'에서 이 사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미국은 올 초 사우디와 중국의 긴밀한 관계를 의식해 엔비디아 고급 그래픽 카드 수출을 줄였는데, 그러자 사우디가 중국과 거리를 두며 미국과의 접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세마포어는 "사우디는 대규모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는데, 이는 사실상 역내 최대 맞수인 UAE와의 경쟁"이라며 "사우디는 가능한 한 빨리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보안 요구를 충족하려 노력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지난 50년간 자원 불모지인 대한민국에서 국내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비철금속 분야 세계 1위에 오른 고려아연.
국가기간산업의 토대를 닦으며,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역군으로서 자부심을 키워왔습니다.

올해 50주년을 맞은 고려아연은 모든 임직원들이 함께 50주년을 향한 미션도 발표했습니다.

고려아연의 미션은 "다양한 원료 및 에너지원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친환경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세상이 필요로 하는 형태의 소재와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단기차익 실현에 급급한 사모펀드의 공격에 고려아연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적대적M&A에 성공한다면 비철금속산업과 2차전지 공급망 등 국가기간산업이 흔들리고,
국가 핵심기술과 인력의 유출도 우려됩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이 '우리의 미션'을 위해 다시 달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 고려아연과 계열사 임직원 일동

고려아연

반도체 SW 강화하는 SK… ‘CXL 제어솔루션’ 리눅스 탑재

‘HMSDK’ 업계 표준 기대



SK하이닉스 CXL 2.0 메모리 제품. 사진제공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CXL) 메모리의 구동을 최적화해주는 자사 소프트웨어 ‘HMSDK(Heterogeneous Memory S/W Development Kit)’의 주요 기능을 세계 최대 오픈소스 운영체제 리눅스(Linux)에 탑재했다고 23일 밝혔다.

CXL은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에서 중앙처리장치(CPU)·그래픽처리장치(GPU), 메모리 등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대용량, 초고속 연산을 지원하는 차세대 인터페이스다. 기존 메모리 모듈에 CXL을 적용하면 용량을 10배 이상 확장할 수 있다.

이번에 리눅스에 탑재한 HMSDK는 SK하이닉스 고유의 이종(異種) 메모리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다. 효과적인 메모리 제어로 CXL 메모리를 포함한 이종 메모리 시스템의 성능을 높여준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CXL 메모리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이을 차세대 AI 메모리로 주목받는 제품”이라며 “당사는 자체 개발한 CXL 최적화 소프트웨어인 HMSDK의 성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이를 세계 최대 오픈소스 운영체제인 리눅스에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HBM 등 초고성능 하드웨어 메모리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경쟁력도 인정받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리눅스를 기반으로 일하는 전 세계 개발자들이 CXL 메모리를 이용할 때 SK하이닉스 기술을 업계 표준으로 삼게 된다.

회사 측은 향후 차세대 메모리와 관련한 글로벌 협력을 해나가는 데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MSDK는 기존 메모리와 확장된 CXL 메모리 간의 대역폭에 따라 차등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해 기존 응용 프로그램을 조정하지 않고도 메모리 패키지의 대역폭을 30% 이상 확장시켜 준다.

또 이 소프트웨어는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를 더 빠른 메모리로 옮겨주는 ‘접근 빈도 기반 최적화’ 기능을 통해 기존 시스템 대비 성능을 12% 이상 개선해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업계는 올 하반기 중 ‘CXL 2.0’ 규격이 적용된 첫 서버용 CPU가 시장에 출시되면서 CXL이 본격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맞춰 SK하이닉스도 96기가바이트(GB), 128GB 용량의 CXL 2.0 메모리에 대한 고객사 인증을 진행 중이며, 연말 양산을 계획하고 있다.

주영표 SK하이닉스 부사장은 “거대언어모델(LLM)과 같은 인공지능(AI)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서는 반도체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수준도 크게 향상시켜야 한다”며 “이번 리눅스 탑재와 협업을 계기로, 기술 혁신과 이 분야 생태계 확장에 힘쓰면서 ‘토털 AI 메모리 솔루션 기업’의 위상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英노동당 집권 석달 만에 ‘등돌린 민심’… 슈퍼리치도 짐싼다

부유층 대상 증세·규제 강화 추진
연말까지 9500명 영국 이탈 전망
서민층서도 공공지출 삭감 ‘비판’

키어 스타머 영국 노동당 정부가 집권한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은 가운데 서민과 부유층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런던에 본거지를 두고 있던 슈퍼리치들이 고율의 세금 우려에 영국을 떠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약 30명의 자산관리 컨설턴트와 슈퍼리치를 인터뷰한 결과 이들 중 일부는 영국 투자 포트폴리오를 정리해 현금화했으며, 재벌가의 자녀를 비롯한 여러 부유층이 영국을 떠날 채비를 하거나 이미 떠났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사모펀드 업체 제너럴애틀랜틱은 일부 직원들이 런던 사무실을 떠날 것으로 내다봤고, 런던에 거주 중인 유명 헤지펀드 억만장자인 앨런 하워드는 스위스 제네바로 이주를 검토하고 있다.

UBS에 따르면 영국에는 총 300만 명이 넘는 백만장자가 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 이민 자문사 헨리 앤 파트너스가 최근 발표한 ‘2024년 부의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500명의 백만장자가 영국을 이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전망대로라면 1만5200명의 이탈자가 전망되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엑소더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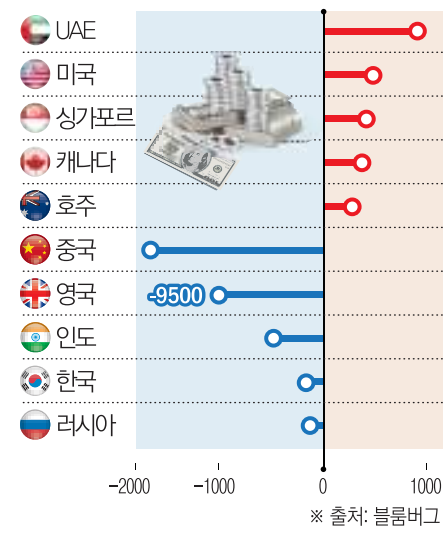
스타머 총리는 7월 총선거에서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부의 재분배를 이뤄내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1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실제로 그는 집권 후 부유한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세금 우대 혜택을 비롯해 사모펀드 투자, 사립학교 수업료 등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겠다고 천명했다. 부유층에 대한 과세로 세수를 늘려 재정적자를 메우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가뜩이나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로 런던의 금융 허브 지위가 크게 흔들린 상황에서 노동당 정부가 부유층을 겨냥한 세금 인상과 규제 강화 정책을 추진해 슈퍼리치의 엑소더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외 자산에 대해 상속세율 40%를 부과하고, 펀드매니저 성과 보수에 대해 소득세율을 기존 28% 대신 45%로 적용하는 방안이 부유층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여기에 자녀 교육을 위해 런던에 체류하는 부유층의 경우 2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점도 반발을 사는 대목이다.

서민층에서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대규모 공공 부문 지출 삭감에 나면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간 가디언의 일요일판 옵서버가 여론조사 기관 오피니언과 함께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의 직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24%로, ‘반대한다’는 응답률 50%보다 크게 낮았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올해 국가별 백만장자 유출입 전망
(단위: 명) ※유동자산 100만달러 보유한 개인 기준



※ 출처: 블룸버그



‘AI반도체 최강자’ 노리는 퀄컴… 인텔 인수까진 ‘가시밭길’

한때 ‘반도체 제왕’으로 불렸던 인텔이 인수합병(M&A)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쟁사인 퀄컴이 최근 인텔에 인수를 타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가능성과 시나리오에 대해 여러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 시너지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수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3일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퀄컴의 인텔 인수 타진 소문이 완전 사실무근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 주로 만드는 퀄컴이 과거부터 PC와 전장 등으로 확장을 꿈꿔 왔기 때문이다. 마침 인텔 위기론도 불거지며 퀄컴의 인수 타진설이 설득력 있게 퍼진 것으로 보인다.

퀄컴의 인수 추진 소문과 관련해 그 대상이 인텔 전체인지, 인텔의 특정 사업부에 대한 것인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퀄컴이 인텔 사업부 가운데 PC부문에서 중앙처리장치(CPU) 설계 부문을 인수하며 사업 확대를 노릴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인텔은 많은 지식재산권(IP)을 바탕으로 CPU 설계에 특화된 회사다. 자사 팹(공장)을 이용해 직접 반도체를 생산하는 종합반도체기업(IDM)이기도 하다. PC와 데스크톱, 서버 등 전통적인 컴퓨터 하드웨어에 최적화됐다. 반면, 퀄컴은

인텔과 퀄컴 주요사업모델 특징 및 차이





전문가, 시너지 효과엔 공감

인텔사 전체? 특정사업부만?

인수 규모 아직까지 ‘베일 속’

퀄컴 ‘CPU설계’ 부문 인수해

미래 전략 사업 확대 노릴 듯

모바일 기기와 같은 프로세서 설계에 뛰어나다. 팹리스 회사인 퀄컴은 칩 제조를 TSMC와 같은 파운드리 업체에 맡긴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퀄컴은 AP에 전문성을 갖춘 빅테크 팹리스 회사이며 인텔은 CPU 프로세서와 IP를 갖춘 회사”라며 “인텔은 특히 인터커넥션 기술과 전통적인 IP에서 전문성을 보이고 있는데, 퀄컴이 미래 전략 부분에서 시너지를 낼 좋은 부분을 발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이런 시너지 효과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가 제조하는 프로세서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부분에서 한계도 존재한다.

경희권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은 “퀄컴은 ARM 아키텍처에 기반해 설계한 칩 스냅드래곤을 만들고, 인텔은 x86 아키텍처를 사용해 PC와 노트북, 서버 등 CPU를 만들어 두 회사의 기술적인 소프트웨어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구조상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다.

퀄컴과 인텔의 시너지와 별개로 애초에 인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반도체지원법’이다. 이 법에 따라 인텔은 정부로부터 85억 달러(약 11조3492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됐다.

“인수 과정 쉽지 않을 것”

“PC-모바일, 시스템 구조 달라

시너지 크지 않을 것” 의견도

‘반도체지원법’ 85억弗 수혈

사업 일부 매각 땐 반환해야

만약 인텔이 팹리스 사업부의 일부를 매각하면 이 법의 운용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최종적으로 퀄컴의 인수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이다. 경 연구위원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운용 요건이 있는데 (사업부 매각으로 인해 지원금을) 운용을 하지 않으면 다시 반환해야 할 수 있고, 그 규모가 상당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텔이 분사하기로 결정한 파운드리(칩 위탁생산) 사업부는 인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텔 적자의 주범인 파운드리 사업부를 퀄컴에서 가져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수진 기자 abc123@

트위터 인수 나섰던 사모펀드도 ‘군침’

美아폴로, 50억弗 투자 제안

인텔 시가총액의 5.2% 수준

블룸버그 “경영진 제안 검토중

구체적 사안은 확정되지 않아”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사모펀드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사모펀드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가 인텔에 50억 달러(약 6조6680억 원) 투자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인텔 경영진은 이번 제안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2000년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막강한 지배자였던 인텔은 올 들어 지금까지 시가총액이 약 53% 감소했다. 이제 사모펀드까지 인텔 투자를 제안하는 형국이 됐다.

아폴로가 제안한 투자가 어떤 형태일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블룸버그가 ‘유사지분 투자(equity-like investment)’라고 보도한 점을 고려하면, 직접적인 지분은 갖지 않지만 기업 실적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함께 얻거나 부담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기준 인텔의 시가총액은 932억 달러다. 아폴로가 제안한 투자금은 시총의 5.2% 수준이다.

지난해 인텔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 투자 확대 등을 공언하며 잠시나마 실적 회복세를 보였다. 덕분에 작년 연말 주가는 51.2달러 수준까지 올랐다. 그러나 올해는 계속되는 실적 쇼크로 주가가 급락했다. 10일에는 18.5달러까지 주저앉았다.

이후 인텔이 파운드리 분사 등 구조조정 계획을 밝히고 퀄컴이 인수에 관심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가가 다소 회복했지만, 여전히 연초 대비 50% 이상 빠진 상태다.

블룸버그는 “아폴로의 투자 제안은 인텔의 회생 전략에 대한 신뢰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인텔에 투자의향을 내비친 아폴로는 현재 기업 인수, 특히 보험 분야에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1990년대 부실기업 투자 전문으로 출발한 자산운용사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또 아폴로는 굵직한 미국계 IT 기업의 인수전이 펼쳐질 때마다 단골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22년에는 트위터 인수전에 뛰어들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미국계 사모펀드 토마브라보 등과 경쟁하기도 했다.

인텔과도 이미 관계를 맺고 있다. 인텔은 6월 아일랜드 공장을 관리하는 합작사 지분 49%를 110억 달러에 아폴로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퀄컴이 인텔 인수 의향을 내비쳤지만, 이를 성사시키려면 세계 반독점 당국을 납득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야 한다. 반면 아폴로의 투자 제안은 당국의 승인을 얻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것으로 보인다.

김준형 기자 jun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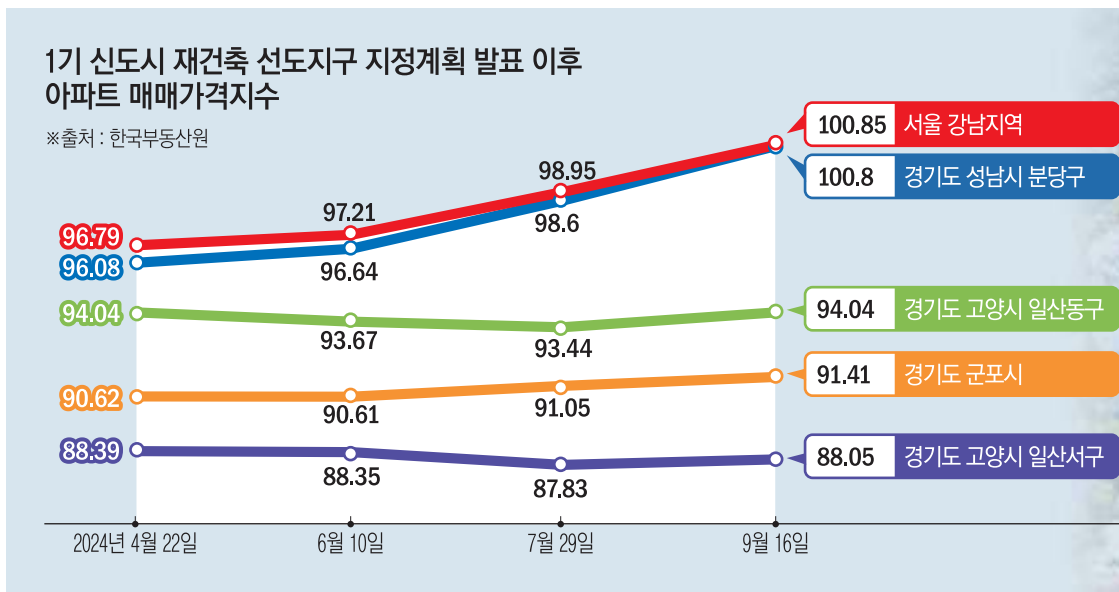


‘선도지구’ 계획 발표만으로… 분당 집값, 서울보다 더 올랐다

분당 아파트값 고공행진

발표 후 4월말 대비 4.91% ↑
서울 전체보다 1.1%p 더 올라
5개월 연속 상승…수억씩 뛰기도

평촌, 선도지구 기대감에 신고가
일산·중동·산본은 반영 안된듯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이 본격화한 가운데 관련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는 모습이다. 선도지구 물량이 최대 1만2000가구로 가장 많고 수익성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는 분당의 오름세가 두드러진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계획 발표 직후(4월 29일) 이달 셋째 주(16일 기준)까지 4.9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전체 상승률(2.03%)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서울 전체(3.8%)는 물론이고 강남지역(4.19%) 오름폭도 웃도는 수치다. 서울에서 분당구보다 상승률이 높은 곳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뿐이다.

분당구는 4월 다섯째 주 소폭 하락한 이후 최근까지 20주가량 줄곧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수억 원씩 오른 상승거래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보면 수내동 ‘양지마을금호’ 전용면적 198.45㎡는 지난달 직전 신고가 22억8000만 원보다 4억5000만 원 오른 27억3000만 원에 팔렸다. ‘양지마을청구’ 전용 134.8㎡는 올해 3~4월 각각 17억3000만 원, 19억4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달에는 22억7000만 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2월 18억5000만 원에 매매된 수내동 ‘파크타운’ 전용 186.09㎡는 지난달 21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서현동 ‘시범우성’ 전용 84.88㎡는 지난해 11억5000만 원에 팔렸는데 올해 13억~14억 원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같은 단지 84.6㎡는 연초 14억 원 미만에서 매매됐는데 지난달 15억7500만 원까지 오른 거래가 나왔다.

평촌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양새다. 평촌신도시가 있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정 계획 발표 후 수도권 평균보다 높은 2.84%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평촌동 ‘꿈마을우성’ 전용 158.22㎡는 지난달 14억7000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올해 3월 13억3000만 원에서 반년 새 1억4000만 원 오른 것이다.

호계동 ‘목련경남’ 전용 164.4㎡도 지난달 14억9500만 원으로 신고가를 썼다. 지난해 11억8000만~12억85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억 원 이상 상승한 가격이다.

하지만 일산과 중동, 산본 등 다른 지역은 재건축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지 않는 모습으로, 1기 신도시 내에서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고양시 일산서구는 선도지구 지정계획이 나온 뒤 0.38% 하락했고 일산동구는 보합을 나타냈다. 중동신도시가 속한 부천시 원미구와 산본신도시가 있는 경기도 군포시는 각각 1.58%, 0.87% 오르는 데 그쳤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분당은 사업성이 가장 나은 것으로 평가되는 데다 인근에 주상복합 등 비싼 주택들이 자리하고 있어 재건축 이후 집값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강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그렇지 않다”며 “선도지구 지정 이후 재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지역별 흐름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전보규 기자 jbk@

〈킬로와트시당〉

한전, 4분기 전기요금 일단 동결… 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6월말 기준 연결부채 203兆 육박
전문가 “원가 이하로 팔아 적자”
재무 상황 고려 연내 인상 가능성
요금 인상 두고 정부부처 간 이견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다만 이는 3개월마다 자동으로 이뤄지는 전기요금 ‘미세조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연내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전력은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근 3개월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매 분기에 앞서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조정단가에 전기 사용량을 곱해 계산된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최근 최대치인 ‘+5원’을 계속 적용 중이다.

정부와 한전은 4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을 동결했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별도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4분기 전기요금은 일단 동결된다.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했을 때 한전은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해야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러나 한전 재무 상황이 위기 수준으로 심각하고,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부분인 전력량요금의 미조정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한전이 이번 분기도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유지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한 학계 전문가는 “지금은 동결한다지만 결국 나중에 내야 할 돈이 더 늘어나는 구조”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했던 실책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은 문 정부 시절인 2021~202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43조 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았다. 이 과정에서 한전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었다. 6월 말 기준 한전의 연결 총부채는 202조8900억 원이다. 작년 말(202조4500억 원)보다 4400억 원가량 늘었다. 이 같은 상황은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2021년 말 3만 원을 넘던 한전의 주가는 현재 2만 원대에 간신히 턱걸이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한전의 재무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 현실화 차원의 인상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시점과 관련해 “폭염 기간은 지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 상황이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서 웬만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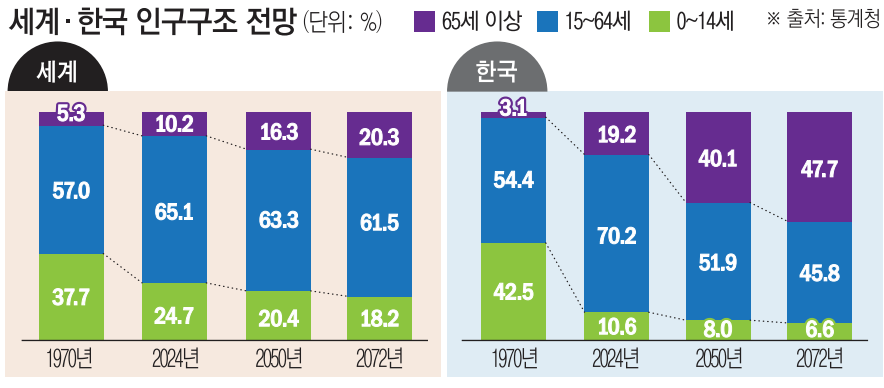
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22일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전기요금이 약 50% 인상돼 국민 부담이 늘어났다”며 전기료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2072년 한국 인구 3600만명으로 ‘뚝’… 절반가량이 65세 이상 노인

통계청 ‘세계·한국 인구 전망’

세계 인구는 25% 늘어 102억명
韓노년부양비 104.2명으로 증가
인구성장률 내년부터 감소로 전환



50여 년 뒤 세계 인구는 20억 명 이상 늘어 100억 명대를 넘어서지만,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을 기록 중인 한국 인구는 3000만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은 23일 이런 내용의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을 발표했다. 세계 인구는 올해 81억6000만 명에서 계속 증가해 2072년에는 102억2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20억6000만 명 늘어난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인구는 5200만 명에서 3600만 명으로 1600만 명 감소할 전망이다. 세계 인구가 25.2% 증가할 때 한국 인구는 30.8% 줄어드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의 인구 순위는 올해 29위에서 2072년 59위로 30계단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0.6%에서 2072년 0.4%로 줄어든다. 남북한을 모두 합쳐도 50년 뒤 6000만 명 안팎일 것으로 예측됐다. 남한과 북한을 합한 총인구는 올해 7800만 명에서 2072년 59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남북한 인구 순위는 올해 20위에서 2072년 40위로 20계단 떨어진다. 한국과 북한 인구는 각각 2020년과 2032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외국인 유입 등을 고려한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2025년(-0.13%)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자료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과 유엔(UN)의 세계인구전망에 기초해 237개 국가(지역)를 대상으로 비교한 것이다.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화하면서 한국 인구 중 고령인구 구성비는 올해 19.2%에서 2072년 47.7%로 증가할 전망이다. 인구 절반가량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인 것이다. 세계 인구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올해 10.2%에서 2072년 20.3%로 증가한다. 2072년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홍콩(58.5%)과 푸에르토리코(50.8%)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도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올해 27.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늘어나 3.8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마찬가지로 홍콩(170.9명)과 푸에르토리코(134.6명)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세종=정호영 기자 moonrise@

韓 독대 요청에… 용산 '대통령 압박하나' 불쾌감

〈한동훈〉

尹·與 지도부 오늘 만찬 회동

대통령실 "상황 보자" 했지만
언론 통한 요청에 거부 어려워

與 일각 "韓 얄팍한 언론플레이"
친한계 "안만날 이유 없어" 강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사이에 24일 만찬을 하루 앞두고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만찬에 앞서 한 대표가 갑작스럽게 독대 요청을 한 데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미리 공개되면서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여서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요청에 대해 "상황을 보자"고 말을 아끼며 사실상 직접적인 답을 피한 상태다. 내부에선 당혹스럽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체코 순방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윤 대통령은 24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용산에서 만찬 회동을 한다. 당초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만찬이 추석 이후로 미뤄지면서 약 한 달 만에 회동이 이뤄지게 됐다.

만찬 일정은 윤 대통령이 체코 순방을 떠나기 직전 알려졌다.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그간 당정 불협화음에 대한 논란과 이로 인한 윤 대통령과 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 등을 고려하면 소통과 화합의 성격 역시 짙었다.

그러나 만찬 이틀 전인 전날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별도의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예상치 않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은 답보 상태에 놓인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당 대표 취임 두 달간 한동훈표 정치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와 당 장악력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독대 요청으로 승부수를 띄운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 대표의 요청에 대해 "상황을 보자"며 사실상 즉답을 피했고, 내부에선 "당혹스럽다"는 말도 흘러 나오고 있다. 만찬에 앞서 자연스럽게 독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먼저 요청해 마치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어낸 데다 이런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면서 거부하기 어려운 모양새를 갖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요청을 거부할 경우 자칫 양측의 갈등을 대통령실이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이 불쾌감을 내비친 만큼 성사 여부를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 설령 독대가 이뤄진다고 해도 이 같은 불편한 과정을 거친 만큼 편안하게 마주해 생산적인 논의를 하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여야 대치, 의정 갈등, 김건희 여사 행보 등 민감한 현안을 꺼내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여당에선 이번 독대 요청을 두고 잡음이 벌어지고 있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한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과 독대 요청을 단독 기사로 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신뢰를 못 받고 있는지, 온 동네 광고하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저렇게 얄팍하게 언론 플레이로 자기 정치하는 사람은 정말 처음 본다"고 비난했다.

반면 친한동훈계 한 관계자는 본지에 "독대는 당연히 필요하다. 지금 어려운 점이 많다. 의정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추석은 넘겼지만 의사 일부가 구속되고 내년에는 무더기 유급 사태가 우려되는 등 여러 근본적인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다"며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서 의견을 전달하고, 대통령의 입장도 듣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안 만날 이유가 없지 않나. 명분이 없을 것"이라며 "무산시키게 되면 대통령실이 더 비난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정영인 기자 oin@



'딥페이크 방지법' 여가위 통과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선 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가위는 이날 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北 쓰레기풍선 총 5500여개 합참 "선 넘으면 군사적 조치"

국민 안전 심각한 위해 발생 시
원점 타격 상응하는 대응책 거론
"北 풍선 도발 비용 쌀 970톤 해당"

우리 군이 북한이 날려 보내는 쓰레기 풍선에 '낙하 후 수거' 원칙을 이어가되 상황에 따라 군사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23일 경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배포한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우리 군 입장' 메시지에서 "북한의 계속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우리 군이 북한 쓰레기 풍선에 대응해 군사적 조치를 시행하는 기준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선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며 "현재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이 장기화하고 있고, 또 국민께 불편과 불안감을 주고 있어 현재까지 군의 입장을 정리해 메시지를 드렸다"고 설명했다.

'쓰레기 풍선도 도발로 간주되면 원점 타격 원칙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국내에 여러 피해나 화재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런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군사적 조치를 추가로 할 만한 사안은 없었다"면서도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직접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군사적 대응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합참은 북한이 5월 28일부터 이날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5500여 개의 풍선을 부양했다며 "국제적으로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로 우리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해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저급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합참은 북한이 지금까지 쓰레기 풍선을 제작하는 데 5억 5000만 원(개당 10만 원)을 썼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북한 시세를 기준으로 쌀 970톤(t)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또한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가 장기화하면서 일부에서는 공중 격추 등 군의 물리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중 격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해 물질이 확산할 경우 우리 국민의 안전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면서 풍선 부양 원점에서부터 실시간 추적·감시하며 낙하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수거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한 조치이며 군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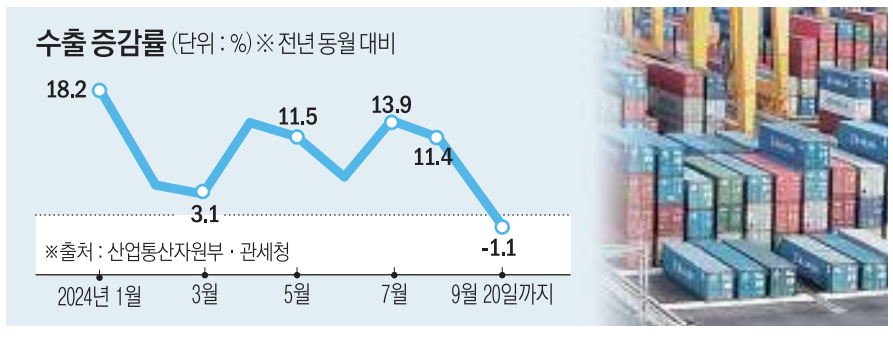
정영인 기자 oin@



연휴 탓에 이달 수출 1% 감소… 일평균은 18% 늘었다

〈1~20일〉

조업일수 작년보다 2.5일 적어
이달까지 12개월 플러스 전망
주력인 반도체 수출 26% 뛰어
무역수지도 16개월째 흑자 기대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줄면서 이달 2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평균 수출은 두 자릿수가 늘었고, 정보기술(IT) 기기 관련 수요가 늘면서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과 무선통신기기 수입 등은 급증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55억83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 줄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8.0%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3.0일로 작년(15.5일)보다 2.5일 적었다.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남은 기간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많고 월말로 갈수록 수출이 늘어나는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달에도 수출은 플러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8.8%)와 석유제품(-5.0%), 철강제품(-9.5%), 자동차부품(-13.3%), 선박(-9.3%) 등 주요 품목 대부분이 감소했다. 반면 주력 제품인 반도체 수출은 26.2% 늘었다. 반도체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작년 11월부터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컴퓨터 수요 증가에 컴퓨터 주변기기(75.6%) 등의 수출도 급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5.9%), 유럽연합(EU·-15.1%), 일본(-12.4%) 등으로의 수출이 감소했고 중국(2.7%), 베트남(1.2%), 대만(79.8%) 등으로의 수출은 늘었다. 대중(對中) 수출액은 77억300만 달러로 대미(對美) 수출액(61억7300만 달러)을 웃돌며 최대 수출국 자리를 이어갔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47억8400만 달러로 4.5% 감소했다. 원유(-14.8%), 기계류(-1.4%), 석유제품(-6.8%), 승용차(-21.8%) 등의 수입이 줄었다. 반면 신형 아이폰 출시에 무선통신기기 수입이 73.6% 급증했다. 반도체(17.4%)와 반도체 제조장비(33.7%) 등도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6.5%), EU(-1.7%), 미국(-4.0%)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줄었고 대만(31.0%) 등은 늘었다. 무역수지는 7억9900만 달러 흑자였다. 지난달 같은 기간에는 14억5800만 달러 적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년 3개월째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수출이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일평균 수출은 두 자릿수대를 기록했다"며 "이달에도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주력 품목의 호조세를 바탕으로 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와 16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K-과자 수출액 '역대 최대' 한국 과자를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과자 수출액이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과자류 수출액은 4억9420만달러(약 6605억 원)로 작년 동기보다 15.4% 증가했다.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과자를 구매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반도체·조선 제외 10월 경기 흐림"

산업硏, 전문가 업황 조사

내수·수출·생산 기준치 넘었지만
車·화학·철강 등 업황 악화 우려

반도체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견조한 경기 개선세가 유지되지만, 다른 주요 업종의 10월 경기 흐름은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은 8월 9~13일 13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Professional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10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103을 기록해 기준치인 100을 웃돌았다고 23일 밝혔다. PSI는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보다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 지표로는 내수, 수출, 생산이 각각 105, 109, 108로 고른 개선세가 전망됐다. 내수의 경우 지난달에는 99로 기준치 아래였다가 이번에 다시 기준치 위로 회복됐다. 세부 업종별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CT 부문의 경기 개선세가 이어지겠지만, 다른 업종의 경기 흐름은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가 156으로 9월과 같은 수준의 견조한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고, 가전도 115를 기록했다. 조선(119)과 섬유(106)도 기준치를 상회했다. 반면 자동차(81), 철강(89), 기계(94), 화학(94), 바이오헬스(94) 등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업황 악화 우려가 컸다. 9월 제조업 업황 현황 지수는 기준치인 100으로 전월(101)과 유사한 수준을 이어갔다.

9월 현황 PSI를 세부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전체를 이끄는 반도체가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반도체 9월 현황 PSI는 전월보다 6포인트 오른 156을 기록했다. 반면 반도체를 제외한 정보기술(IT) 업종 다수는 100은 웃돌았지만 개선세가 전월보다는 둔화했다. 디스플레이는 전월보다 6포인트 하락한 107, 전자는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한 103, 휴대전화는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한 110을 기록했다. 가전은 전월보다 8포인트나 하락하며 92로 업황이 악화할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업황 현황 PSI는 지난해 1월(82)부터 상승세로 전환해 지난해 8월(101) 이후 14개월 연속 100을 상회하고 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한국이 만든 자율주행 교통신호, 美서도 쓴다

사실상 국제표준으로 등극

韓 제안 담긴 'SAE J2735' 발간
자율차·스마트기기 간 공용언어
국표원, 경찰·교통공단 협업 개발
차량공유 등 미래차 분야서 활용

우리나라가 제안한 자율주행 교통신호 데이터 표준(TLSM·Traffic Light Signal Message)이 자율차 분야 사실상 국제표준인 미국의 표준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미국 자동차기술자협회 표준(SAE J2735)의 2024년 개정판으로 한국이 제안한 자율주행 교통신호 데이터 표준이 반영돼 16일(미국 현지시간) 발간됐다고 23일 밝혔다. SAE J2735는 TLSM 등 자율주행 데이터 형식을 정의한 표준으로 전 세계 자율주행 업계에서 사실상 지배적 표준으로 활용 중이다.

국표원은 지난해 SAE와 맺은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SAE 표준 제·개정 활동 참여 등 표준협력을 추진해 왔다. 이번 성과는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개발하고 국표원이 국가표준(KS)으로 제정을 추진 중인 KS R 1600-3(교통신호 데이터)의 내용을 SAE J2735 개정 작업에 제안해 받아들여진 결과다.

국표원은 2020년부터 관련 부처 및 업계와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 데이터 국가표준(KS R 1600 1~7)을 개발하고 있다. 자율주행 데이터 형식 표준화는 자율차-교통 인프라-스마트기기 간 소통을 위한 공용언어로서 자율주행의 기본적 안전 향상뿐 아니라 차량 공유, 원격 모니터링 등 미래 모빌리티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우리 자율주행 데이터 표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라며 "국표원은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및 산업 활성화의 기본 토양이 되는 자율주행 데이터 국가표준(KS) 제정을 지속 추진하고, 한미 표준 협력 등 국제 협력을 통해 국내 기술의 세계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한국형 교통신호 데이터의 미국 표준 반영은 그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의 결실"이라며 "표준화된 교통신호 정보는 자율주행차량뿐만 아니라 향후 모빌리티의 안전 운행을 지원하는 필수 정보인 만큼 수집·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장에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농식품부, 서울대와 '푸드테크 유니콘' 육성

2027년까지 거대신생기업 30개 목표

정부가 서울대 등과 2027년까지 푸드테크 거대신생기업 30개를 육성하기 위해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서울대 행정관에서 서울대, 한국푸드테크협의회와 '세계를 주도하는 푸드테크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법·제도적 기반 조성 및 정책적·재정적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거점 기관 구축 △콘퍼런스·포럼·엑스포, 토크 콘서트 등 국내외 행사 공동 추진 △국내외 연구기관·단체·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이들 기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2027년까지 푸드테크 분야 거대신생기업(예비유니콘 포함) 30개 육성, 푸드테크 수출액 20억 달러 달성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협력의 성과가 더욱 확산하여 한국의 푸드테크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전용 펀드 확대(2023~2024년, 310억 원), 지역 기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3개소) 등을 추진 중이다. 올해 11월에는 한국푸드테크협의회와 함께 세계 유수의 기관,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행사인 월드푸드테크포럼(11월 18~19일)을 개최한다. 코엑스(COEX)와는 푸드위크(11월 20~23일) 행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푸드테크 기업 및 제품을 전시·홍보한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SK

첫 걸음의 설렘,
함께 해 온 여정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내일의 힘이 되도록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나아갑니다 나아지도록



QR코드를 찍고
내일의 에너지를
확인해보세요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SK 지오센트릭 SK 온 SK 엔무브 SK 인천석유화학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 아이이테크놀로지 SK 어스온 SK 엔텀

이스라엘 전면전 으름장에… 美마저 "임계 넘지 말라" 경고

헤즈볼라와 최대 규모 교전

"물러나지 않으면 레바논 침공" 확전불사 입장에 전운 최고조
美 "외교적 해결 남겨라" 촉구



이스라엘-헤즈볼라 교전 격화 ※현지시간 기준 ※출처 : 월스트리트저널(WSJ)

2023년 10월~	이스라엘-헤즈볼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이후 접경지대 저강도 교전
2024년 7월 30일	이스라엘, 헤즈볼라 고위급 지휘관 베이루트에서 암살
8~9월	이스라엘-헤즈볼라, 공습·폭격 등 화력 공방 격화
9월 17~18일	레바논에서 무선호출기(삐삐)·무전기 동시다발 폭발 사건 발생
9월 19일	헤즈볼라,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 보복 공개 선언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군사자산 표적 대규모 공습
20일	헤즈볼라, 이스라엘 북부 공습 이스라엘, 레바논 베이루트 표적 공습해 헤즈볼라 주요 지휘관 제거
21~22일	이스라엘-헤즈볼라, 연일 충돌하며 가자전쟁 이후 최대 교전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 사이의 전면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최근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방위적 공세는 물러나거나 전쟁을 치르라는 '암묵적 최후통첩'에 해당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분석했다.

헤즈볼라가 물러나지 않자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지상전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면전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커졌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가자지구 전쟁을 배경으로 벌어졌지만, 점점 더 전쟁의 초점이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스라엘은 최근 정보력과 군사력을 동원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 헤즈볼라 전투원들이 소지하던 무선호출기(삐삐)와 무전기(워키토키)를 무더기로 폭파해 통신 시스템을 마비시키는가 하면, 베이루트 공습으로 정예 라드완 부대 지도부 대부분을 제거했다.

이는 1년 가까이 이어진 헤즈볼라와의 분쟁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일부라고 이스라엘 관리들은 말했다. 그동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서로가 공격할 수 있는 장소, 사용 무기, 민간인 또는 전투원 살해 여부 등을 정해진 '비공식 규칙'에 따라 싸워왔다. 하지만 베이루트 공격은 이러한 게임의 규칙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한 이스라엘 관리는 "베이루트 공격은 이스라엘이 이러한 긴장 고조 행위를 더는 레드라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의 전략적 변화는 뚜렷한 외교적 탈출구가 없는 국경 간 분쟁에서 전환점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WSJ는 짚었다. 헤즈볼라는 가자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휴전 회담은 수개월째 결실을 보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접근법이 양측 모두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의 군사적 압박에도 헤즈볼라는 굴하지 않고 반격을 이어갔다. 헤즈볼라는 이날도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등 115발을 발사했다. 이스라엘도 헤즈볼라 거점을 타격하는 등 반격을 이어갔다.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IDF) 수석 대변인은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스라엘 지상군이 국경을 넘어 레바논을 급습할 수도 있는지'라는 질문에 "자국 북부의 안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전술적 접근 방식을 이해한다면서도, 헤즈볼라에 대한 대응이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아야 한다고 직접 경고했다. 또 이스라엘 측에 "대응할 때에도 외교적 해결의 여지를 남겨 두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전날 레바논에 대한 여행 경보를 '여행 금지'에 해당하는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모든 자국민에게 이용할 수 있는 상업적 선택지를 통해 현지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美대선 경합주 찾은 젤렌스키… 해리스 지원사격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에 있는 육군 포탄공장을 방문해 생산된 포탄에 기념 메시지를 쓰고 있다. 젤렌스키가 이번 주 유엔총회에 맞춰 미국을 방문하면서 첫 장소로 이곳을 택한 것은 많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 공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이는 포탄을 생산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중요한 경합주 중 하나이다. 또 스크랜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고향이다. 이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간접 지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크랜턴(미국)/로이터연합뉴스

머스크 "2년 내 화성行 스타십 쏜다"

"스페이스X, 유인탐사 4년 내 가능"
"관료주의가 문제" 민주 해리스 저격

테슬라와 민간 우주개발기업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사진〉가 자신의 오랜 꿈인 화성 개척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2년 안에 화성에 우주선 스타십을 무인으로 5회 발사할 계획"이라고 적었다. 스타십은 달·화성 탐사를 위해 개발된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다.

그는 "화성으로 가는 첫 무인 스타십은 2년 내로 발사할 수 있다"며 "무인 스타십이 안전하게 화성에 착륙하면 유인 탐사는 4년 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착륙 여부와 관계없이 화성행 우주선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우주여행을 원하는 사람을 화성에 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설립한 이후 핵전쟁 등에 대비한 '화성 인류 이주'를 목표로 내걸었다. 이후 여러 차례 화성행 우주선 시험비행을 해왔다. 올해 6월 스타십은 4번째 시도 끝에 지구 궤도를 비행하고 인도양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다. 머스크는 "스타십이 달까지 사람과 물자를 수송하고 궁극적으로 화성에 다다르는 우주 비행체가 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다만 머스크는 스타십 발사 준비 계획을 두고 여러 차례 말을 바꿔 왔다. 앞서 4월 머스크는 첫 무인 스타십이 화성에 착륙하는 것은 5년 내로, 인류가 처음 화성에 도달하는 것은 7년 내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머스크는 화성 발사 계획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스타십 프로그램이 매년 증가하는 산더미 같은 정부 관료주의에 질식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며 "이 관료주의가 민주당 정부에서 커질 것이 확실해졌고 이는 화성 계획을 파괴하고 인류를 파멸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나영 기자 2or0@



'저출산 극복' 화촉 밝힌 中정부… 1만명 합동결혼

신중국 건국 후 최대 규모
예식 간소화로 비용 줄여
결혼 촉진 효과는 미지수

중국 정부가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고육지책 중 하나로 초대형 합동결혼식을 치렀다.

2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와 여성단체인 중화전국부녀연합회는 이날 베이징을 포함해 50개 지역의 행사장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남녀 1만 명, 즉 5000쌍의 합동결혼식을 거행했다.

중국 전통 예복을 입은 신랑·신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고 다짐했고, 값비싼 연회와 고액 예물 등 기존 관습에서 탈피해 간소한 절차로 식을 치렀다. 이날 결혼식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래 중국 당국이 주선한 결혼식 중 최대 규모다.

앞서 중국 지방자치단체들은 한 건의 혼인신고라도 더 받겠다며 지난달 10일 칠석(음력 7월 7일)날 연장근무에 나서는가 하면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시 정부는 신혼부부에게 복권을 증정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가 경제적 부담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이들의 부담을 덜고자 손발을 걷어붙였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실제 중국에서 지난해 혼인 신고 건수는 768만 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반토막 났다. 올 상반기 결혼 부부는 343만 쌍으로 전년 동기와 견줘 50만 쌍 가까이 감소했다.

더군다나 올해는 '과부의 해'라는 속설로 결혼이 더욱 기피되고 있다. 과부의 해는 24절기 중 봄이 시작되는 '입춘'이 음력 설보다 빨라서 속칭 '봄이 없는 해'로 여겨져 이때 결혼하면 아내가 미래에 과부가 된다는 설이 전해진다. 이에 정부는 1월 이런 설은 미신이며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논평을 내며 결혼을 독려하기도 했다.

중국 젊은이들은 이러한 낭설 외에도 결혼을 기피하게 하는 경제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16~24세 실업률은 18.8%로, 중국 당국이 재학생을 통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새로운 청년실업률 통계 방식을 도입한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높다. 또 도시를 중심으로 생활비가 급증하면서 결혼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 금값이 고공 행진하면서 예물 값도 치솟고 있다.

가까스로 결혼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출산으로 쉽게 이어지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902만 명으로 집계, 7년째 내리막길을 걸었다. 양육비 폭등과 맞벌이 가구 증가로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진영 기자 mint@

美의회 지도부 임시예산 합의… 셧다운 모면

12월까지 숨통…분쟁은 대선 이후로

미국 연방정부가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두고 다시 한번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를 모면했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 지도부는 약 3개월간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단기 지출 법안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도부는 지금 수준의 예산을 유지하되 비밀경호에 2억3100만 달러(약 3086억 원)를 추가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두 차례의 암살 시도에 따른 결정이다. 또 대통령직 인수인계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과 자연재해 구호 기금이 법안에 추가됐다.

임시 지출 법안은 하원과 상원을 거쳐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의회 지도부는 셧다운 시한인 내달 1일 전까지 서둘러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11월 대선을 문제없이 치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AP는 짚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임시방편인 탓에 대선이 끝나자마자 차기 행정부와 의회의 본격적인 예산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합의로 선거 기간 정부 셧다운을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대선과 새 의회가 열리는 내년 1월 사이 기간을 예산 분쟁이 지배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전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추석연휴 '논길정체' 티맵, AI로 분위기 반전 노린다

AI 에이전트 '어디갈까' 출시

AI가 장소 추천·검색·예약까지 맞춤형 초개인화 서비스 제공

LLM 기반 대화형 검색도 도입

고부가 데이터사업 수익성 강화

올 매출 700억 이상 달성 목표

티맵모빌리티가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장소 에이전트'를 앞세워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부가가치가 높은 데이터 사업을 중심으로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티맵모빌리티는 23일 서울 중구 SKT타워 수펙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AI 장소 에이전트 서비스 '어디갈까'를 출시했다. 어디갈까는 사용자가 갈 만한 장소의 추천·검색·예약 기능을 제공하는 AI 장소 에이전트다. 이종호 대표는 "실제 주행 데이터를 장소 검색과 추천 로직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어디갈까는 오직 티맵만이 선보일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서비스"라며 "AI를 적용해 개인 맞춤형 장소 추천을 점차 고도화하고 장소 검색과 이동 전후의 연결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디갈까는 △내 주변·발견 △장소 상세 및 리뷰 △인증뱃지 △추천 검색 △이동 시 추천 △비즈 플레이스 등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연간 67억 건의 이동 데이터를 학습했다. 전창근 프로덕트 담당은 "그동안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서비스로 이동의 편의성을 높였다면 이제부터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도 제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내 주변' 탭에서는 500m~10km까지 거리별 인기 장소를 추천받을 수 있다. 시간·성별·나이별 필터로도 탐색할 수 있다. '발견' 탭에서는 사용자의 이동 패턴에 맞춰 개인화된 장소를 추천한다. 티맵모빌리티는 사용자 리뷰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도 높였다. 주행인증리뷰에는 해당 장소의 경험뿐 아니라 주차 등 차량 방문 시 필요한 정보를 함께 얻을 수 있다.



이종호 티맵모빌리티 대표가 23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AI 장소 에이전트 서비스 '어디갈까' 출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티맵모빌리티는 운전하면서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는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대화형 검색 기능도 도입할 계획이다. 향후 티맵모빌리티는 데이터 사업을 강화해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700억 원 매출을 달성하고, 2027년까지 매출 기준 50% 성장을 이어나간다는 목표다.

티맵모빌리티는 어디갈까 등 내비게이션 이외의 서비스에서 유입되는 트래픽을 확대해 장소나 버티컬 데이터 등 정형·비정형 정보들을 수집한다. 이에 △데이터 비즈 △카라이프 △마케팅 플랫폼 △TMAP 오토 등 데이터 기반 핵심 사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티맵은 2025년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 이 대표는 "올해 상반기부터 수익성이 높은 데이터 사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피벗(방향 전환)을 강하게 추진 중"이라며 "올해를 성장 원년으로 삼고 수익화에 대한 부분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경우 1~2년 내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추석 연휴 일부 이용자들이 티맵 내비게이션의 안내로 충남의 논길에 들어섰다가 극심한 정체를 겪은 것에 대해선 "추석 연휴에 이면도로 정체로 인해 불편을 끼치게 된 점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정민규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추석 당일인 17일 오후 충남 아산 근처 국도 정체가 예년보다 5배 정도 늘어나는 트래픽 집중 현상이 있어 이면도로로 안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단기 조치는 이미 진행했고 장기적으로 길 안내 알고리즘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letswin@

코스맥스, 美 하버드대와 미래 화장품 솔루션 개발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공동연구

코스맥스그룹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피부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화장품' 개발을 위해 미국 하버드대학교와 손을 잡았다.

화장품 ODM(연구·개발·생산) 기업 코스맥스는 미국 하버드대 의과대학 계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과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공동 연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양측은 공동 연구를 통해 인종까지 고려한 스킨케어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병주(오른쪽) 코스맥스 대표와 브리튼 니콜슨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수석 부사장이 '마이크로바이옴-의학 중개 연구'에 대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코스맥스

코스맥스는 지난해 11월 하버드대와 포괄적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 의학적으로 검증된 기능성 성분 포함 화장품) 기술 개발에 뜻을 모았다. 이후 공동 연구의 핵심 주제를 '생활 양식, 환경적 요인과 피부 질환 및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간의 다중 상호 작용 규명'으로 정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몸 안에 사는 미생물(microbe)과 생태계(biome)를 합친 말로, 면역 기능을 조절하고 각종 대사물질을 생성해 암, 자가 면역질환에 연관성이 커 건강기능식품에서 화장품, 치료제 개발까지 활용되고 있다.

하버드대 의대 유관 학과와 코스맥스 연구진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기반으로 바이오·의학 분야 신기술 개발 확장에 나설 방침이다. 이병주 코스맥스 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인 코스맥스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력이 또 한번 도약 할 수 있는 최고의 협력 체계가 구축됐다"며 "이번 공동연구가 미래 화장품 산업을 이끌어갈 바이오 메디컬 코스메틱 분야의 새로운 장을 구축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kjy42@

살 빠지고 탈모·성기능 장애 개선…

삶의 질 높이는 '해피 드러그' 새 블루오션 주목

노보노 비만약 '위고비' 내달 첫선

탈모치료제 부작용 줄인 신약 개발

발기부전치료제 등도 잇따라 출시

삶의 질을 높여주는 '해피드러그(Happy Drug)'가 주목받고 있다. 해피드러그는 질병 치료보다 생활속 불편함을 개선하는 약이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가격이 비싸지만, 생활수준이 높아지며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23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비만, 탈모, 성기능 장애 등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는 해피드러그가 업계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가장 뜨거운 건 비만치료제 시장이다. 당뇨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체중이 감소하는 부작용을 발견하며 지금의 비만약이 탄생했다. 전 세계의 급격한 비만 인구 증가에 관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이 2030년까지 1000억 달러(약 136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에선 10월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약 '위고비'가 첫 선을 보인다.

비만약만큼 관심이 높은 것이 탈모약이다. 현재 국내 승인된 탈모치료제는 전문의약품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일반의약품 미녹시딜이 있다. 제약사들은 기존 치료제의 부작용을 줄인 신약개발에 힘을 주고 있다.

성기능 장애 개선 약물도 대표적인 해피드러그다. 발기부전과 조루 등 성기능 장애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고, 우울증과 불안 등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 시대에 고령층의 성생활도 활발해지면서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요구도 크다. 성기능 장애 개선 치료제는 꾸준히 시장에 나오는 이유다.

대표적인 약은 화이자가 개발한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다. 이후 릴리의 '시알리스', 한미약품 '팔팔', 종근당 '센돔' 등이 출시됐다. 최근에는 동구바이오제약과 시티씨바이오가 발기부전 치료제와 조루 치료제를 더한 먹는 약인 '구세정'을 공동개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피드러그는 삶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높여주는 약이다. 기분을 좋게 하고 우울감을 줄이는 데 도움 되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해피드러그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대한항공, 퇴역 항공기 '업사이클링 굿즈' 출시

꼬리 날개 모양 네임택·볼마커 제작

대한항공이 퇴역 항공기를 활용한 네 번째 업사이클링(Up-cycling·새활용) 굿즈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항공의 이번 업사이클링 굿즈는 HL7721 항공기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나온 자재를 활용했다. 기종은 보잉 777-200ER로 2003년 10월 비행을 시작해 2020년 5월 은퇴했다. 전 세계 98개 공항을 1만1637차례 오갔다. 비행 거리만 총 6282만6262㎞에 달한다.

대한항공은 HL7721 동체 일부를 잘라 동체 일부를 잘라 네임택과 골프 볼마커로 재탄생시켰다. 각 제품에는 일련번호를 새겨 희소가치를 높였다. 네임택은 꼬리 날개 형태로 새롭게 디자인해 여행의 설렘과 추억을 기억할 수 있게 했다.


대한항공은 HL7721 항공기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나온 자재를 재활용해 네임택과 골프 볼마커를 제작해 업사이클링 굿즈를 출시했다. 사진제공 대한항공

HL7721 네임택과 볼마커는 대한항공 브랜드 굿즈 공식 판매 홈페이지 이스카이 숍 '업사이클링 굿즈' 코너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강문정 기자 kangmj@

자체 AI기술로 무장한 K솔루션 '스타트업' 세계서 '눈독'

'S2W' 다크웹 등 보안 입지 탄탄

'에이젠글로벌' 금융 플랫폼 제공

'에이아이포펫' 펫 케어 협력 확대

자체 인공지능(AI) 솔루션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세계 각국의 핵심 기업이나 정부 기관 등과 손잡고 해외 파트너십을 넓혀가고 있다.

23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S2W는 AI 및 보안 전문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업으로서 해외에서의 입지가 탄탄한 것으로 평가된다. S2W는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고도화된 보안 솔루션을 통해 복잡하고 난해한 비정형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고난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7월에는 글로벌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 미국 본사와 파트너십을 체결, 생성형 AI 보안 플랫폼 '시큐리티 코파일럿'에 자사 언어모델 '다크버트'를 제공해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다크버트는 업계 최초의 다크웹 전용 AI 언어 모델로, 다크웹 특유의 언어와 문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 및 훈련돼 수집된 각종 범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정제하고 분석한다.

에이젠글로벌은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이다. 2021년부터 AI 기술을 활용해 동남아시아 전기 이륜차 금융 시장에서 본격적인 E-모빌리티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동남아 최대 택시 호출·배달 앱인 '그랩'과 협력해 인도네시아의 전기 이륜차와 배터리를 담보로 기사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AI 금융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앞으로는 태국과 베트남에도 유사한 사업 모델을 도입한다는 목표다.

반려동물 건강관리 앱 서비스 '티티케어' 개발사 에이아이포펫은 자사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 간 거래(B2B) 시장을 공략 중이다. 최근에는 미국 최대 펫 데이케어 기업 '도그토피아'와 AI 기반 펫 케어 서비스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에이아이포펫은 도그토피아와의 MOU를 시작으로 4분기 일본, 중동, 인도, 동남아시아 다양한 펫 관련 기업과 B2B 제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뜨겁고 위험한 철강업… AI 로봇이 열일하네

스마트팩토리 구축 한창

포스코 '코크스 오븐' 로봇 점검
동국씨엠, 코일 자동포장·운송
현대제철, 검사용 AI 개발 추진





포항제철소에서 고열의 코크스 오븐을 로봇이 점검하고 있다(위 사진). 동국씨엠 부산공장의 코일 자동 포장 로봇. 사진제공 각 사

철강업계가 로봇·인공지능(AI)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사들은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한창이다. 빅데이터와 첨단 정보기술(IT)을 공정에 적용해 AI 기반의 지능형 공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포스코는 현장에서 설비 점검에 힘쓰는 직원의 안전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자 로봇 하드웨어, 제어 소프트웨어, 스마트 센서와 AI 기술 등을 통합하는 4대 로봇 솔루션(고정형·이동형·원격운전·플랫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4족 보행 로봇솔루션은 기존 바퀴형 이동 로봇과 비교하면 턱이나 계단 같은 장애물에 제약을 덜 받고 움직임이 자유롭다. 현재 광양제철소 1고로 풍구상에서 사람을 대신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포항제철소에 자율운전 통합관제 플랫폼(PosRX Platform)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높은 온도로 인해 작업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5기 코크스 오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포스코DX는 산업현장의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로봇이 대신하는 인텔리전트 팩토리 구현에 나섰다. 먼저 포항제철소 냉연 공정의 밴드 커터(Band Cutter) 자동화 공정에 로봇을 도입했다.

동국제강그룹은 2018년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설립하고 제조 현장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동국씨엠 부산공장은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에 집중하고 있다. 이 스마트 물류 프로젝트의 핵심은 △자동 포장 설비 △자동 운송 설비 △자동 무인 크레인 시스템이다.

자동 포장 설비는 기존에 수작업으로 이뤄지던 코일 포장 과정을 자동화해 시간당 최대 20개의 포장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부산 공장 전체 제품 포장량의 45%를 처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품종의 소량 생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비를 구성했다.

자동 운송 설비는 코일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총 4대 도입했다. 이 설비는 75톤(t)의 운송 능력을 갖췄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옥외 도로에서 중량물을 운송할 수 있다. 또한, 동국씨엠은 올해 기존의 수동 전동차(100톤)를 무인 전동차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무인 자동 크레인은 건물 천장에 설치해 중량물을 자동으로 들어 올려 지정된 위치에 내려놓는 설비다. 총 10대를 도입함으로써 작업 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현대제철은 글로벌 판매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비롯해 설비 신규 투자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양산 체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제철은 싱가포르 과학기술청 산하 연구센터인 ARTC와 함께 비전 인공지능(Vision AI) 기술개발 협력을 추진한다. 이번 협력을 통해 현대제철은 제품 표면 결함 파악 등에 적용 가능한 AI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철강 제조공정의 혁신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욱 기자 toto@

'안 된다는 생각 버려라'… 40년 된 삼성 '반도체人 신조' 바꾼다

'DS인의 일하는 방식' 의견 수렴
앞으로 50년 초격차 회복 의지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50년을 맞아 삼성 반도체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 온 '반도체인의 신조'를 새로 만든다. 반도체 사업 초격차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시대 변화에 맞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서 'DS인의 일하는 방식'을 제정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반도체인의 신조는 1983년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삼성전자가 임직원의 의지를 다지고자 만든 10가지 행동 다짐을 말한다. 1974년 한국반도체를 인수하며 반도체 사업에 첫발을 내디딘 삼성은 1983년 고(故) 이병철 창업회장이 일본 도쿄에서 반도체 산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발표한 '도쿄 선언'을 계기로 반도체 사업에 속도를 냈다.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은 저서 '초격차'에서 "나를 포함한 모든 삼성 반도체 임직원은 아침마다 반도체인의 신조 10개 항목을 외치고 일을 시작했다"며 "그중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와 '큰 목표를 가져라'는 지금도 내 삶의 신조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고 회고한 바 있다.

김기남 고문 역시 2019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인터뷰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1986년 1Mb D램 개발을 꼽았다. 김 고문은 그 순간을 "삼성전자 반도체인의 신조 1번 항목인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를 가슴에 품은 시점"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상무 출신인 양향자 전 국회의원은 2020년 고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도체인의 신조를 공유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 기술과 시장 트렌드가 급변함에 따라 그간 삼성 반도체의 구심점이 됐던 반도체인의 신조를 계승하되 '앞으로의 50년'을 위해 새롭게 일하는 방식을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최근 인공지능(AI) 시장 확대로 급부상한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또 7월에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등 안팎에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5월 반도체 구원투수로 전격 투입된 전영현 DS부문장 부회장은 삼성 반도체의 초격차 경쟁력을 회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전 부회장은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반도체 신(新)조직문화'(C.O.R.E. 워크) 조성을 제시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한화에어로, 루마니아서 K9 만든다
호주 이어 두 번째 해외 공장 짓기로

내년초 착공… 폴란드 공장도 추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현지 생산공장을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 호주 질롱공장에 이어 폴란드, 루마니아에서 해외 생산기지를 짓고 선제적으로 방산 수요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23일 루마니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 현지에 K9 자주포 등을 생산할 방산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정확한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내년 초 착공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터 배(Peter Bae)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럽지사 부사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루마니아는 한화의 모든 지상 시스템을 지원하는 유럽 내 허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장 설립은 7월 루마니아 국방부와 1조3828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데 따른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지 업체와 협력해 2027년부터 K9 자주포 54문과 K10 탄약운반차 36대를 순차 납품할 예정이다. K9과 K10 외에도 정찰·기상 관측용 차륜형 장비, 탄약 등을 패키지로 구성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 보병전투장갑차(IFV) 사업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독일, 영국 등 글로벌 방산 기업이 참여 예정인 이 사업에는 레드백 장갑차를 내세웠다. 레드백 장갑차는 이미 호주에 납품한 바 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7월 호주 질롱에 자주포와 장갑차를 생산할 공장인 'H-ACE (Hanwha Armoured vehicle Centre of Excellence)을 완공했다. 한국 방산업체 최초의 해외 생산기지다. H-ACE에서 AS9 자주포와 AS10 탄약운반차를 양산한다. AS9과 AS10은 K9, K10의 호주 개조 모델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폴란드 최대 민간 방산업체 WB그룹과도 천무 다연장로켓의 유도탄 현지 생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K9 자주포(오른쪽)와 K10 탄약운반차. 사진제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양사는 천무의 폴란드 개량형인 '호마르-K(HOMAR-K)'의 유도탄 중 사거리 80㎞급 유도탄(CGR-80)의 현지 생산을 검토하기로 했다. WB그룹은 현재 호마르-K에 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 및 통신 장비 등을 공급한다.

이동욱 기자 toto@

"차기 美 대통령 누가 돼도 AI 반도체 패권 경쟁 치열"

상의, 한미 산업협력 콘퍼런스

한국과 미국 반도체·배터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과 파장을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23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회관에서 '제4회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반도체분야 전문가들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의 중국 견제와 자국 내 투자 확대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인공지능(AI) 반도체는 국가대항전에 더해 엔비디아 연합 대 미국 IT·첨단기업 위주로 형성된 반(反)엔비디아 연합(UA링크) 간 대결 구도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기업들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대응방안 관련해 "고성능 AI 전용 메모리칩과 선행기술, 표준 및 로드맵 설정 등 제반 분야에서 미국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 위치를 점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게리 클라이드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다음 대통령 임기 동안 반도체산업의 주요 관심사는 AI가 될 것"이라며 "고성능 반도체와 인재 확보가 필수인데, 만일 트럼프가 된다면 이 두 가지를 중국으로부터 철저히 차단하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주로 나왔다. 화상 연결로 주제발표에 나선 '배터리 전쟁'의 저자 루카스 베드나르스키(Lukasz Bednarski)는 "해리스가 당선되면 IRA를 포함한 배터리 정책 전반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며 "반면 트럼프가 된다면 IRA 혜택이 축소돼 한국 배터리 기업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abc123@

LG AI연구원, 국내 최초로 AI 윤리 평가·인증기관 선정

국제 표준화기구와 파트너 계약

LG AI연구원은 이달 중순 국제 표준화 기구인 국제전기전자 표준협회(IEEE-SA)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첫 인공지능(AI) 윤리 평가·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IEEE-SA는 전기 및 전자 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표준 개발 및 인증 기구다. 175개국 3만4000명의 전문가가 모여 2100개 이상의 국제 표준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LG AI연구원은 국제 AI 윤리 인증인 'IEEE CertifAIEd(Certified AI Ethics)' 국내 1호 협력 기관으로서 IEEE-SA와 함께 AI 윤리 국제 표준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LG AI연구원은 먼저 LG 계열사와 글로벌 파트너사들의 AI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인증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 AI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AI 개발자와 사용자들에게 윤리적 AI 기술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박민웅 기자 pmw7001@


"먼훗날 네 여정은
지금보다 훨씬 즐겁고
더 안전할거야."
더 즐겁고 안전한 미래 모빌리티,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기술이 만듭니다
HYUNDAI
MOBIS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안보법 '뒷짐' 진 국회

韓 보안산업 동상이몽 따로가는 '사이버안보 강국'

K-보안은 세계 속으로

北 등 사이버 공격 고도화 불구 대응 분산
22대 국회 발의 '0'… 정쟁에 자동폐기도
딥페이크 방지법 35건 발의 등과 대조
국정원도 "입법, 국회·국민 공감대 필요"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난 22대 국회에서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발의는 여전히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안보기본법은 국가 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하고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가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정부가 '공세적 방어'를 앞세운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을 띄우고 있지만, 국회 내 입법활동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3일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이버안보기본법'은 0건이었다. 같은 기간 '인공지능(AI) 딥페이크 방지법'은 35건, '인공지능(AI) 기본법'은 10건 발의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내에선 흩어진 사이버 위기대응 체계를 통합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 사이버 위기대응 체계는 분절된 상황이다. KT·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기반시설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공공기관 및 부처에는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이 적용됐다. 민간 분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따라왔다. 이 때문에 정보보호 업계에선 상충하는 법안으로 인해 대내외적 사이버 공격에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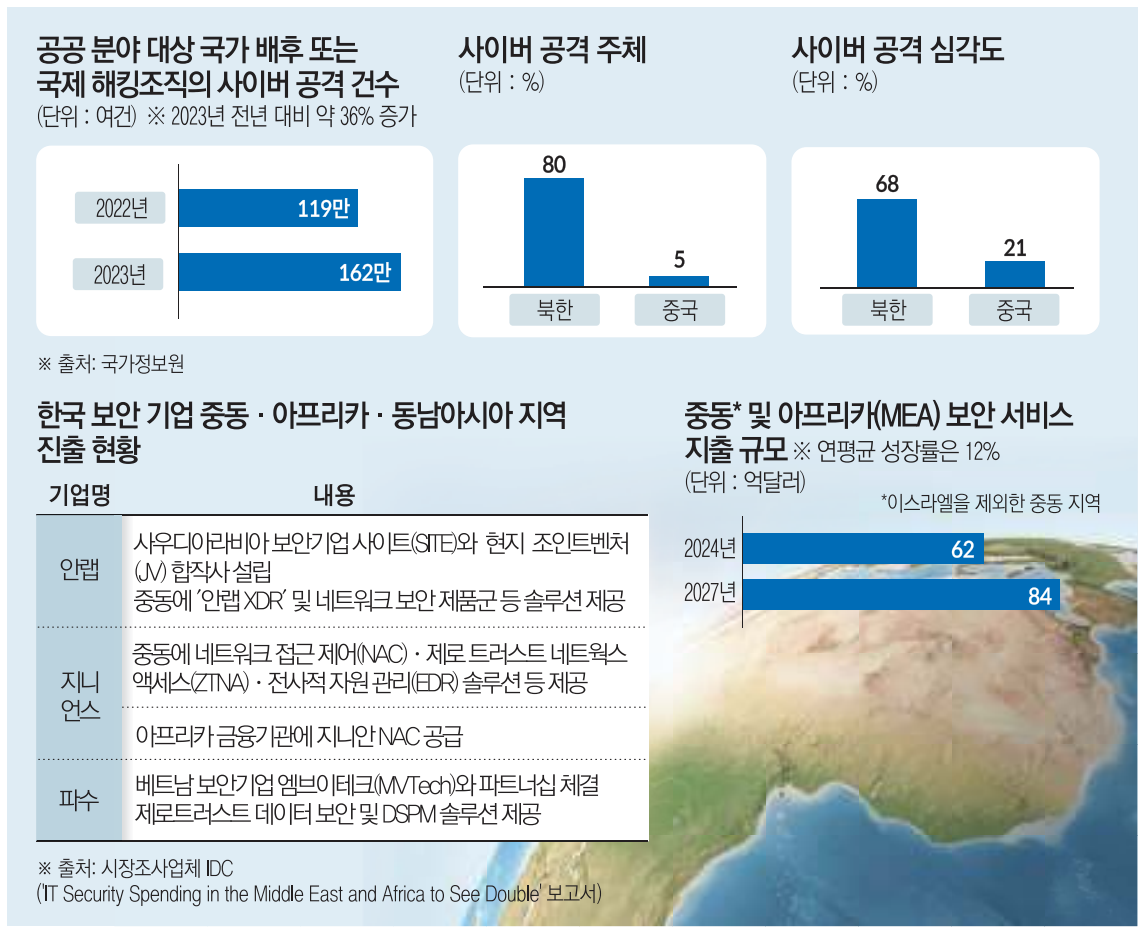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조사관은 "북한 등으로부터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이버 위기 대응 체계가 국방, 공공, 민간 각 영역으로 분산돼 있다"며 "사이버안보 대응을 총괄할 수 있는 기본법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 간 정쟁으로 국회 통과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은 17대 국회 때부터 논의됐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는 악순환을 겪었다. 지난 국회에선 해당 법안을 조태용 당시 국민의힘 의원(현 국정원장)과 김병기·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가정보원은 5일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국정원 산하에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이다. 국정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 연구소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국가안보기술연구원으로 이관받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정원 산하에서 사이버안보 관련 연구·개발을 하던 조직이다. 그러나 관리 체계가 이원화돼 연구·개발 역량을 발휘하기 힘들었다는 게 국정원 측 설명이다.

정보보호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입법 필요성은 여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의사결정이 됐다. 다만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합의가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 관계자도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국회와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letswin@



국내 보안 기업이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글로벌 신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정보기술(IT)의 확산으로 보안 인프라 수요가 늘면서 사이버 공격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기업은 정치적 불안전성이 상존하는 중동 지역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23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안랩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보안 기업 사이트(SITE)와 현지 조인트벤처(JV) 합작사를 설립한다. 안랩은 25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사이트의 하산 M. 알후세인을 기타 비상무이사로 선임한다. 안랩과 사이트의 지분비율은 각각 25%, 75%다. 안랩 관계자는 "사우디 현지 조인트벤처 법인은 현재 설립 서류접수 및 행정처리 중으로 9월 내 설립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의 JV는 사우디아라비아 내 공공기관과 기업에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안 위협 분석 플랫폼 '안랩 XDR' △네트워크 보안 제품군 등 안랩의 솔루션·서비스를 제공한다. 추후 생성형 AI 보안, 사물인터넷(IoT) 및 운영기술(OT) 보안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지니언스는 중동 시장에 적합한 관리형 사이버 보안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지니언스는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사이버보안 국제협력기반 기술개발' 국책과제의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니언스는 시큐레이어, 테이텀시큐리티, 강원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국(UAE) 소재 사이버 보안 기업 'RAS인포텍(RAS Infotech)'과도 협력한다.

지니언스는 중동에 △네트워크 접근 제어(NAC)·제로트러스트 네트워스 액세스(ZTNA)·전사적 자원 관리(EDR) 솔루션 글로벌 진출 △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SIEM)·보안 오케스트레이션(SOAR) 등 보안 통합 플랫폼 구축 △데이터 관리 규정을 준수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등을 제공한다. 지니언스는 아프리카 케냐 금융기관에도 지니안 NAC를 공급했다. 지니언스가 확보한 아프리카 고객은 총 6곳이다.

파수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한다. 파수는 최근 베트남 보안 기업 엠브이테크(MVTech) 그룹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파수는 MVTech를 통해 파수의 제로 트러스트 데이터 보안 및 데이터 보안 태세·형상 관리(DSPM) 솔루션을 공급한다. 해당 솔루션은 데이터의 모든 생애주기에 걸친 식별, 분류, 보호, 추적,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파수의 문서보안 솔루션 '파수 엔터프라이즈 디알엠(FED)'과 데이터 식별·분류 솔루션 '파수 데이터 레이더(FDR)' 등을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보안업계 관계자 A 씨는 "중동 지역은 지정학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서 미국 측의 보안 제품을 믿기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다"며 "한국 제품은 중동 지역에서 거부감이 적다. 중동과 한국의 보안 시스템이 유사하기도 하다"고 했다.

이은주 기자 letswin@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 수출 청신호
네이버, 연내 사우디에 중동 총괄법인 설립

〈네이버 아라비아〉

사우디 'RHQ' 프로그램에 참여
첨단기술 분야 대규모 국책 협력
B2B사업 글로벌 외연 확장 기대

네이버가 올해 안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중동 총괄 법인(가칭 NAVER Arabia)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네이버의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 수출길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사우디아리비아가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RHQ(리저널 HQ)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첨단 기술 분야의 대규모 국책과제들에 함께 협력하는 한편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된 개별 사업 단위별 JV(조인트 벤처) 설립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사우디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의 파트너로 참여 중인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MOMAH)와 국립주택공사(NHC) 등과 함께 JV를 구성하는 식이다.

디지털 트윈에 이어 '소버린 인공지능(AI)' 구축에 있어서도 사우디와 본격적인 협력이 시작된 만큼 팀네이버의 기술 기반 B2B 사업이 중동 지역에서 먼저 글로벌 외연을 넓혀갈 것으로 기대된다. 팀네이버는 12일 GAIN 2024에 참석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AI 분야를 주관하는 데이터인공지능청(SDAIA)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AI·클라우드·데이터센터·로봇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폭넓게 협력한다고 밝힌 바 있다. MOU에는 아랍어 중심의 거대언어모델(LLM)구축을 비롯해 데이터센터 관련 솔루션, 클라우드 플랫폼 제공, 지능형 로봇과 관련한 연구와 응용 서비스 개발까지 AI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우디는 올해 자체 아랍어 LLM인 '올람(ALLaM)' 구축을 비롯해 자국의 AI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SDAIA는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직속 조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데이터와 AI 전략을 실현하는 핵심 기구다. 올 3월 AI 분야에 400억 달러(약 53조564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GAIN 2024 컨퍼런스 참석에는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비롯한 최수연 대표, 채선주 대외·ESG정책 대표 등 주요 경영진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다. 팀네이버는 방문기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자치행정주택부 장관, 상무부 장관, 투자부 장관, 데이터인공지능청장 등 정부 핵심 관계자들 외에도 나빌 알누아임(Nabil Al-Nuaim) 아람코 수석부사장, 모하메드 알부티(Mohammad Albuty) NHC CEO, 후사인 사즈와니(Hussain Sajwani) DAMAC 창업자 등과도 만남을 가졌다.

김나리 기자 nari34@



10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글로벌 에아이이 서밋'(GAIN)에 참석한 팀네이버. (뒷줄 왼쪽부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압둘라 알감디 데이터인공지능청장, 채선주 네이버 대외 이에스지(ESG) 정책 대표. (앞줄 왼쪽부터) 에삼 알와가이트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정보센터(NIC)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사진제공 네이버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24년 9월 23일 17:00, KST)
95,643,667
90,857,355
92,836,700
88,085,323
83,137,968
85,094,000원
전일 대비 947,000원 (1.1%▲)
180일전 대비 -14,212,000원 (14.3%▼)
비트코인 가격
이더리움 가격
4,620,800
4,593,419
5,016,900
4,603,323
3,668,355
3,542,000원
전일 대비 80,000원 (2.3%▲)
180일전 대비 -1,532,000원 (30.20%▼)
'24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23일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456,800 -800 (0.2%▼)
리플 789 -8 (1.0%▼)
솔라나 194,700 -2,000 (1.0%▼)
에이다 474 2 (0.4%▲)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이오스 697 3 (0.4%▲)
트론 204 1 (0.5%▲)
스텔라루멘 128 -2 (1.5%▼)
비트코인에스브이 65,550 150 (0.2%▲)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실적부진·매각설… 1세대 외국계 프랜차이즈 잔혹사

업계 돌파구 찾기 안간힘

국내 외식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면서 과거 인기를 누렸던 외국계 프랜차이즈들의 수익성이 줄줄이 악화하고 있다. 신세계푸드가 운영해 온 스무디킹코리아는 수요가 지속해서 줄어들자 내년 10월 8일 이후 국내에서 브랜드를 철수하기로 했다. 브랜드 새 단장과 가맹사업 확대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전략이 통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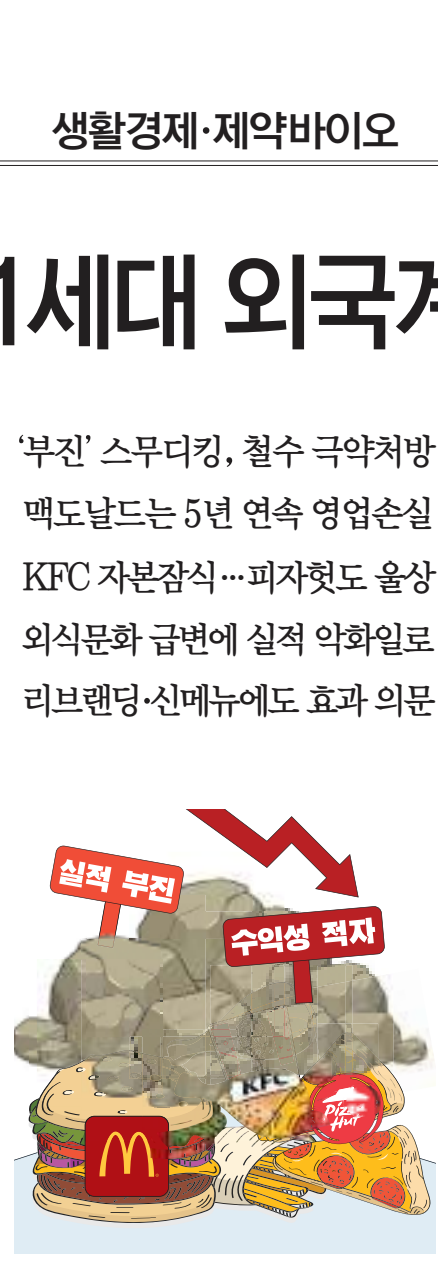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맥도날드), KFC코리아(KFC), 한국피자헛(피자헛) 등 1세대 외국계 프랜차이즈는 최근 실적이 내림세다.

전자공시시스템 한국맥도날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 1조1181억 원을 기록했다. 가맹점을 포함하면 1조3000억 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치다. 다만 수익성은 바닥이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2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규모는 75억 원가량 축소했으나 적자를 면치는 못했다. 이로써 한국맥도날드는 5년째 영업손실을 기록 중이다.

또 다른 외국계 버거 프랜차이즈 KFC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해 KFC 매출액은 2483억 원으로 전년보다 9.8% 증가했다. 하지만 매출원가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은 29억 원에 그쳤다. 전년 61억 원에서 반토막 난 수치다. 재무구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KFC코리아는 2018년부터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낮은 부분 자본잠식 상태다.

피자헛도 토종 피자 프랜차이즈들이 늘고, 외식 트렌드가 바뀌면서 실적 악화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869억 원으로 전년보다 14.8% 감소했고, 영업손실도 지속했다. 특히 영업손실은 지난해 45억 원으로, 전년 2억6000만 원에서 1665.7% 급증했다.

'부진' 스무디킹, 철수 극약처방
맥도날드는 5년 연속 영업손실
KFC 자본잠식…피자헛도 울상
외식문화 급변에 실적 악화일로
리브랜딩·신메뉴에도 효과 의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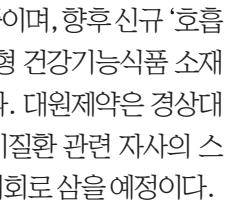
SPC그룹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도 최근 도넛의 인기가 시들해지면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 작년 던킨 매출은 2099억 원으로 1년 전 대비 2% 성장하는 데 그쳤다. 던킨 운영사 비알코리아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2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다.

이처럼 1세대 외식 프랜차이즈들이 실적 부진으로 애물단지가 되면서 주인이 바뀌는 사례도 잦다. KFC는 지난해 4월 KG그룹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오케스트라 프라이빗에쿼티에 매각됐고 맥도날드는 꾸준히 매각설이 제기되고 있다. 피자헛도 미국 본사인 염(Yum!) 브랜드가 2017년 보유 지분 100%를 오차드원에 매각했다. 오차드원은 국내 투자회사인 케이에이치아이가 한국피자헛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실적 개선이 더디면서 외국 본사들도 손을 떼고 있다. 이들 해외 브랜드 업체들은 한국 외식 트렌드가 급변하는 만큼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드 새단장, 신메뉴 출시 등을 복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최근 던킨이 프리미엄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 신규 콘셉트 '던킨 원더스'를 론칭한 것이 대표적이다. 던킨은 원더스를 통해 저당 도넛, 소프트아이스크림 등 기존과 차별화한 메뉴를 판매해 소비자를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맥도날드도 매장 환경 개선 등 고객 경험 향상을 꾀하고 있고, KFC는 한국 진출 40년 만에 첫 가맹사업에 돌입했다.

다만 1세대 외국계 프랜차이즈들이 기존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브랜드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가운데, 1년을 넘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이 다양해진 만큼 한 브랜드를 지속해서 방문하려는 수요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jy42@

제약사 · 대학 간 협업 사례

제약사	대학	내용
대웅제약	서울대	내성 문제 극복한 새로운 독감 치료제 개발
대원제약	경상국립대	건강기능식품 호흡기 건강 건강기능식품 소재개발
GC녹십자	성균관대	연구노트 경진대회 개최…인재 양성 및 학술교류



제약업계 부는 산학협력 바람
신약개발·인재양성 일석이조

대웅제약-서울대, 독감치료제 협업
GC녹십자-성균관대 연구경진대회
공동연구 통해 신약개발 확률 높여

제약기업과 대학간 협업해 치료제와 신약을 개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산학협력은 연구인력·시설·장비 등 연구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공동연구로 연구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주목받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서울대 화학부 교수 연구팀과 내성 문제를 극복한 새로운 독감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협업에 나섰다. 최근엔 양 기관의 '구아니딘 오셀타미비르를 활용한 장기 지속형 항바이러스제 개발' 연구가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 대상 과제로 선정됐다.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주성분 오셀타미비르의 내성 문제 해결과 복약 횟수 기존 10회에서 1회 개선이 연구 목표다.

대웅제약은 완제품 개발 및 임상약 생산·허가를, 대웅바이오는 원료 합성법 개발 및 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GMP) 생산, 서울대는 물질 개발, 한국화학연구원은 생체 외(in vitro)·생체 내(in vivo) 효력 및 독성시험을 담당한다.

오셀타미비르 유사체 '구아니딘 오셀타미비르'는 내성이 생긴 바이러스와 뛰어난 결합력을 보여줘 더 광범위한 변이 바이러스에 항바이러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다만 이 물질은 생체이용률이 4%대로 매우 낮다. 대웅제약과 서울대 연구팀은 '프로드럭(Prodrug)' 기술을 적용해 생체이용률 한계를 극복할 계획이다.

대원제약은 이달 초 경상국립대 산학협력단과 호흡기 건강 기능성 소재 기술이전 계약 및 업무협약을 맺었다. 계약된 기술은 허호진 경상대 교수팀이 개발해 현재 특허 출원 중인 '청각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호흡기 건강 관련 지식재산권'이다. 계약은 해조류 일종인 청각 추출물을 이용해 비임상시험 단계에서 호흡기 보호 효과를 확인해서 이뤄졌다.

대원제약은 내년 인체적용시험 진입을 목표로 연구개발 중이며, 향후 신규 '호흡기 건강'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개발할 계획이다. 대원제약은 경상대와의 협업을 호흡기질환 관련 자사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GC녹십자는 지난달 성균관대에서 '연구노트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경진대회는 GC녹십자가 성균관대와 작년 8월 인재양성 및 학술교류 업무협약 체결 후 진행한 프로그램이다.

연구노트는 연구 시작부터 결과물 보고 및 발표, 지식재산권 확보 등 모든 과정과 성과를 기록한 자료다. 연구 지속성 유지와 연구결과 보호를 위해 쓰이며 논문 발표와 특허출원 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GC녹십자는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의 핵심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와 대학 간 협력 이유는 신약개발과 인재 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라며 "바이오 분야 기초연구의 상업화 연계를 위해선 대학·연구소와 기업 사이의 연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G마켓, CJ대한통운 손잡고 '익일배송'… 쿠팡 정조준

'스타배송' 론칭해 베타 서비스
배송지연시 건당 1000원 보상

앞으로 G마켓과 옥션 고객들도 주문 하루 만에 상품 배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일 오후 8시 이전에 주문을 완료한 경우, 익일 배송을 완료하는 신규 서비스를 론칭했다. 신세계그룹과 CJ그룹 간 협업으로 CJ대한통운의 물류 경쟁력을 활용, 국내 이커머스 강자인 쿠팡의 '로켓배송'에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 계열 이커머스 G마켓·옥션은 26일부터 CJ대한통운과 물류 협업을 통해 '스타배송' 베타 서비스에 나선다. 이 서비스는 100% 도착보장을 목표로 약속한 날짜에 배송을 완료하는 것이 핵심이다. 평일 오후 8시 이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도착을 보장하는 '익일 도착' 서비스다.

만일 약속한 날짜보다 배송이 늦으면 G마켓이 직접 구매고객에게 건당(송장 기준) 1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G마켓과 옥션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스마일캐시로 지급된다. 스타배송 대상상품은 상품명 하단에 스타배송 로고가 붙어 있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양사는 우선 CJ대한통운이 전담하는 G마켓 스마일배송에 스타배송을 선제 도입하고 대상 상품 및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이 서비스는 우선 14개 카테고리 약 15만 개의 상품에 적용된다.

스타배송 서비스는 신세계와 CJ그룹이 6월 체결한 '신세계-CJ 사업제휴 합의' 일환이다. 이번 서비스 개시에 따라 스타 배송 도착보장 상품 전용관도 신설된다. 또 내달 2일까지 홍보를 위해 △CJ제일제당 △아모레퍼시픽 △롯데칠성 △농심 △LG생활건강 5개 업체 브랜드위크와 특집 라이브방송이 진행된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

식음료 강화하는 한화갤러리아, 퓨어플러스 인수

글로벌 F&B 시장 진출 포석

한화갤러리아가 업력 30여 년의 국내 음료업체 '퓨어플러스'를 인수했다. 한화갤러리아가 음료업체를 인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 부사장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식음료(F&B) 시장 진출의 포석을 깐 것으로 본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23일 퓨어플러스 인수에 대해 "경영진들의 판단"이라며 "인수 과정을 김동선 부사장이 특별히 주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김 부사장이 식음료시장에 관심이 큰만큼 업체 인수 관련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퓨어플러스 유기농 주스. 사진제공 퓨어플러스

한화갤러리아는 올해 초부터 진행하던 퓨어플러스에 대한 인수협상 계약을 최근 마무리지었다고 이날 발표했다. 퓨어플러스는 건강음료, 유기농 주스, 어린이 음료 등을 생산하는 식음료 업체로 경남 함양군에 공장이 있다.

퓨어플러스는 지난해 기준 매출 410억 원, 영업이익은 16억 원으로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해외 수출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국내외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여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

〈파리크라상 사장〉

SPC 3세 허진수, K베이커리로 동유럽 '노크'

파리바게뜨 유럽 리더십 회의 개최
체코 투자청장 만나 투자전략 논의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

SPC그룹이 K베이커리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리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동유럽 시장 개척에 나섰다.

SPC그룹은 19~21일 허진수〈사진〉 파리크라상 사장이 체코 프라하에서 '파리바게뜨 유럽 리더십 회의' 등을 열고, 글로벌 사업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동유럽 시장 진출 계획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허 사장은 이번 유럽 리더십 회의에서 잭 모란 (Jack F. Moran) SPC그룹 유럽 총괄 등과 동유럽 수출 확대와 판로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 19일 얀 미할(Jan Michal) 체코 투자청장 등과 투자시장 동향과 투자전략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20일에는 체코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경제사절단으로서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현지 기업인·정부 관계자들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한·체코 협력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허진수 사장은 "경제사절단 참여를 통해 K푸드를 동유럽 시장에 알리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jy42@

〈삼성·SK·현대車〉

빅3 중심으로 자산매입·설비투자 확대… 밸류업도 속도

국내 대기업 '미래성장'에 방점
작년대비 투자활동 4.5兆 증가

국내 대기업들이 미래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산을 사들이고 설비투자에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들의 곳간에 돈이 들어오면서다.

23일 본지가 삼성·현대차·SK·LG·롯데·신세계·GS·HD현대·한화·포스코 등 10대 그룹 내 108개 상장 계열사의 '투자활동 현금흐름'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총65조1633억 원으로마이너스(유출)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10대 그룹의 재무활동 현금흐름 -60조6800억 원보다 4조4833억 원이 늘었다.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기업이 미래 성장을 위해 자산을 사들이고 설비투자에 쓰는 돈을 뜻한다. 특정 기간 기업이 미래를 위해 설비를 늘리면 마이너스(-)가 되고, 곳간에 현금을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플러스(+)가 된다. 고금리가 뉴노멀이 됐지만,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한편, 인공지능(AI)·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신성장 분야에 아낌없이 투자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10대 그룹 108개 주요 계열사가 영업으로 현금을 창출해 내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상반기 73조51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42조7752억 원보다 71.86% 늘었다. 반면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고 갚는 과정에서 현금이 들고 나는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14조8492억 원으로 순유출을 보였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12조3465억 원 순유입상태였다.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은행에서 빌린 자금을 갚거나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이 늘어날 경우 감소한다.

현금흐름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다. AI 혁신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새로운 사이클이 도래하면서, 곳간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

삼성전자의 상반기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약 26조301억 원에 달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7273억7400만 원을 기록했지만, 올 상반기에 7조9386억 원을 기록하며 유입으로 전환했다. 현대자동차의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8조8229억 원보다 17% 늘었다.

2024년 상반기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 현금흐름표

(단위: 억원)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2024년 반기	2023년 반기	2024년 반기	2023년 반기	2024년 반기	2023년 반기
반도체	삼성전자	26조301	17조6427	-23조3064	-25조9345	-9672	17조2728
	SK하이닉스	7조9386	-7273	-5조2423	-5조7564	-3조6098	6조8050
금융사	삼성생명	4조1192	-6730	-4조5804	-4조553	-6541	-3221
	한화생명	1조9134	-3584	-2조6518	1조1687	-6900	-1조9972
자동차	현대자동차	8조8229	7조5132	-5조244	-2조4357	-3조2747	-2조9257
	기아	4조5020	6조2505	-2조6843	7837	-3조4020	-4조117
이차전지	삼성SDI	98	1조293	-1조646	-1조5812	1조5812	742
	SK이노베이션	3856	3914	-281	-8828	-3640	8106
	POSCO홀딩스	1조512	8180	-1633	-1조4384	-4조6341	-5조7354
	LG에너지솔루션	1조398	1345	-2조9129	-2조3677	1조5796	2609

AI 혁신에 따른 반도체 수요 급증
삼성·SK하이닉스 현금흐름 최고

LG그룹 계열사 중에는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돋보였다. 이들은 각각 상반기에 1조6371억 원, 1조398억 원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143%, 673% 늘어난 것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상반기 8180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1조512억 원으로 증가했다.

금융사 중에는 삼성생명이 약 4조1192억 원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보였다. '상각 후 원가측정 금융자산' 증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보험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자산을 늘렸다는 의미로, 변동성을 줄이는 전략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상반기 -3584억 원을 기록했던 한화생명은 올해 상반기 1조9134억 원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보였다.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늘면서 투자도 적극적이었다.

자동차, IT·전자, 화학 산업 등에서 시설, 연구개발 투자가 늘었다. 현대자동차의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5조2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고, 무형자산 중 연구개발활동 총 지출액을 늘렸다. 기아는 -2조6843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유출로 전환했다. 전기차 전환, 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점을 위해 투자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

이차전지 업종은 투자가 위축된 모습이다. 삼성SDI(-1조646억 원), SK이노베이션(-281억 원), POSCO홀딩스(-1633억 원) 등은 마이너스 투자활동 현금흐름을 기록했지만, 전년보다 줄었다.

현대車 시설·R&D 비용 2배 증가
K디스카운트 해소 자사주 소각↑

밸류업(가치 제고) 활동도 적극적이었다.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10대 상장 계열사의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상반기 총 -12조8492억 원으로 마이너스(유출)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이들의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12조3465억 원으로 큰 폭의 유입을 기록했다.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은행에서 빌린 자금을 갚거나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이 늘어날 경우 감소한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기업의 재무활동 현금흐름이 감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최근 대기업들은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 현대차는 내년부터 3년간 배당금을 25% 늘리고 자사주 약 4조 원을 매입해 일부는 소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주는 순이익의 35%를 돌려받는다. LG그룹 지주사 ㈜LG는 최근 취득 완료한 5000억 원 규모 자사주 활용 방안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오는 4분기 중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해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포스코 계열사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4분기 중 공시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정호 기자 godot@

'신저가 방어' 나선 삼성 임원진… 자사주 매입 러시

삼성전자 임원들이 6월 이후 최근까지 6만 여주의 자사주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인공지능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의 주가 급락과 미국 경기 후퇴 우려로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대로 다시 떨어진 상황에서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이 계속될 지 주목된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8월부터 이날까지 한종희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임원진 13명이 자사주를 매입했다. 6월 이후로는 임원진 22명이 약 6만3000여주를 사들였다.

이날 최주호 부사장(베트남복합단지장)은 20일 보통주 1500주를 주당 6만4500원에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임원 22명 넉달간 6만株 사들여

한 부회장이 5일 1만주 7만3900원에 매입, 소유주식을 2만5000주로 늘린 지 약 2주만이다.

주가 부진에 임원진이 기업가치 제고 및 책임경영 참여를 목표로 연이어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달 19일 장 중 6만2200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김대주 부사장은 20일 보통주 5000주장내매수했다. 용석우 사장(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은 같은 날 3000주 사들였고, 이영희 사장(글로벌마케팅실장)도 5000주를 취득했다.

노태문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사장)은 이달 9일 주당 6만9500원에 5000주를 샀다. 박학규 사장(최고재무책임자·CFO)은 12일 자사주 6000주를 주당 6만6850원에 매입했다. 13일 손태용 부사장은 1500주, 정용준 부사장은 1000주를 사들였다. 지난달에는 오문욱 부사장과 정용준 부사장이 각각 1000주를 추가 취득했다.

앞서 6월에는 전영현 부회장이 5000주를 주당 7만5200원씩 총 3억7600만 원을 들여 매입했다. 같은 달 박학규 사장(5500주), 노태문 사장(5000주), 송재혁 사장(2300주), 김동욱 부사장(2000주), 정재욱 부사장(1330주), 박순철 부사장(1000주), 윤주한 부사장(360주) 등도 자사주를 사들였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현대커머셜-LX판토스, 상생금융 협력 MOU 현대커머셜 전시우(오른쪽) 대표가 LX판토스 이용호 대표와 현대커머셜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현대커머셜과 LX판토스는 2018년부터 LX판토스와 함께하는 차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해왔고, 특히 가전제품 운반 차량 차주들에게 합리적인 금리와 한도·기간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사진제공 현대커머셜

삼성화재,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업무 활용

삼성화재는 업계 최초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보험업무 처리에 활용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공공·행정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제공 요구에 따라 본인 혹은 원하는 곳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공마이데이터가 적용된 보험 묶음정보 서비스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포함한 28종의 본인정보로 구성돼 있다.

공공마이데이터를활용해 고객은 보험 가입·청구시 필요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보험사는 데이터 형태로 제공받아 신속·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진다. 삼성화재는 이달부터 자동차 보상 처리 시 운전자와 피보험자 관계 확인 업무에 2종의 본인정보를 활용해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장기보험·일반보험 업무 및 계약 해지나 보험료 환급의 콜센터 계약관리업무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삼성화재

기존에는 보험사에서 안내받은 서류를 고객이 △직접 대면 △팩스 △메일 등으로 제출했으나 공공마이데이터를적용, 본인의 정보제공 요구와 금융인증서 및 휴대폰 본인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보험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김재은 기자 dove@

전국 2.8만곳 집들이하는데… 서울은 달랑 148가구만 입주

올 10월에는 전국 2만7848가구가 입주한다. 지방 입주물량이 전체의 60%를 넘기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정부의 '대출 옥죄기'가 심화하며 새 아파트 전세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 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7848가구로 전월 대비 24% 증가할 예정이다. 지방 입주물량이 지난달 이후 2개월 연속 늘어 전체 물량의 63%(1만7516가구)를 차지한다. 충북(3498가구) 대구(2771가구) 충남(2345가구) 경북(2228가구) 등에서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다.

10월 아파트 입주물량 분석

수도권은 총 1만332가구 입주한다. 경기 입주물량이 많다. 안양시(2802가구) 오산시(1904가구) 안성시(1370가구) 광명시(1051가구) 등에서 입주가 진행된다. 서울은 강서구에서 148가구, 인천은 중구에서 583가구가 각각 입주한다.

두 달 연속 이어진 지방 입주물량 증가세는 11월부터 그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연말에 입주물량이 집중되는 가운데 11~12월에는 수도권 대단지 위주로 물량이 공급된다. 서울에선 유례없는 대규모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이 입주를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린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목적으로 대출규제가 엄격해진 가운데 주요 금융권들이 신규 주택의 전세자금대출에 제한을 두면서 아파트 입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당신이 원하는 인생을 써 내려갈 수 있도록

NH농협금융은
일상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로
당신의 특별한 인생,
모든 순간을 함께하겠습니다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츠운용 NH벤처투자 NH농협카드

은행권 잇단 금융사고에… 금감원 '고강도 정기검사' 예고

잇따른 사건·사고에 은행들이 금융감독당국의 '골칫덩이'로 전락했다. 감독당국은 은행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며 기강 잡기에 나서는 한편, 검사 결과에 따라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서겠다며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내년 초까지 은행권에 대한 감독당국의 검사가 줄줄이 예정된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에 대한 사전 검사를 24일부터 진행한다. 다음달 예정된 정기검사에 앞서 자료 수집 및 중점 점검 사항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검사는 1~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 검사가 끝나면 다음달 7일께 정기검사가 이어지게 된다. 사실 우리금융의 정기검사는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었다. 하지만 우리은행 직원이 대출 서류 조작해 180억 원을 횡령한데 이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이 연루 된 부정대출 사건까지 불거지자 금감원은 정기검사 일정을 앞당겼다.

금감원은 검사 일정만 앞당긴 것이 아니다. 검사 강도도 높였다. 담당 부서인 은행검사 1국 뿐 아니라 은행검사2국에 정보기술(IT)·자금세탁방지 담당국까지 총 4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통상 금융사 정기 검사에 30명 내외의 인력을 투입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늘어난 규모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검사에서는 특정 사안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을 다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다만 워낙 이슈가 많은 만큼 들여다 봐야 할 부분도 많을 것으로 보여 검사인력 등도 확대 배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부터는 '내부통제' 항목 배점도 크게 높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정기검사 때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 △수익성 △유



우리금융·은행 내달초 정기검사
부정대출 등 영향… 일정 앞당겨
'내부통제' 항목 배점 상향 조정
동양·ABL생명 인수 불발될수도
NH농협·KB·BNK금융 등도
늦어도 내년 상반기 검사 전망

동성 △리스크 관리 등으로 이뤄진 은행 경영실태평가를 시행하는데, 당초 경영관리 부분의 하위 항목으로 이뤄져 있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 비중을 15%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신사업 제한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리금융은 현재 동양·ABL생명 인수를 추진 중인데, 만약 이번 정기검사 중 진행되는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미비로 일정 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게 되면, 최악의 경우 보험사 인수가 불발될 수 있다.

금감원의 이같은 강경한 기조에 떨고 있는 것은 우리금융·우리은행뿐만이 아니다. 현재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 KB금융·국민은행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 KB금융·국민은행 역시 각종 금융사고와 불건전영업행위에 연루됐던 만큼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들 금융사 외에도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정기검사도 예고한 상황이다. 다만 이들 금융사의 경우 올해 상반기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00억 원대 배임 사고가 터진 NH농협금융·NH농협은행에 한차례 차례가 밀린 바 있다. 이후 하반기에는 KB금융·국민은행과 우리금융·우리은행에 대한 검사가 연이어 이어지면서 추후 검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나 이미 검사를 예고한 상황이니 만큼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BNK와 부산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도 빠른 시일내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검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정확한 시기는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내년 상반기까지는 감독당국의 칼날이 은행권을 향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검사가 끝나더라도 제재 수위 등을 포함한 검사 결과가 확정될때까지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동시다발적으로 검사가 이뤄지면서 제재까지는 막상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내년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고액 정착지원금 주며 '갈아타기 실적' 압박

대형GA, 2600여건 부당승환 적발

고객의 보험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시키는 '부당 승환계약'이 횡행하고 있다. 법인보험대리점(GA)이 최근 설계사를 모집하기 위해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제공하면서, 실적 압박을 느낀 설계사들이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GA의 과도한 스카우트경쟁과 이로 인한 부당 승환까지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GA 현장검사 결과'에 따르면 5개 대형 GA에서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3502건의 기존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됐다.

39개사 2년간 정착지원금 2590억
설계사 1인당 평균 1738만원 지급
금감원, 강력 제재·모니터링 예고

각GA가운영하고 있는 설계사 정착지원금 제도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했다.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받은 설계사는 실적에 대한 압박·부담으로 새로운 보험계약 성사에 대한 유인이 커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 비교안내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형 GA 39개사는 2022~2023년 중 경력설계사 1만4901명에게 총 2590억 원, 1인당 1738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4433만 원을 지급한 GA도 있었다. 이는 전체 평균의 약 2.6배 수준이다.

높은 정착지원금도 문제지만 해당 제도와 관련해 지급·환수 관련 세부기준(지급 대상자 선정·지급금액·환수조건 등)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또 일부 GA에서는 지역본부장이 영입 설계사에게 회사 내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본부·지점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부당 승환계약에 대한 자체점검 활동이 미흡하고, 부당 승환계약을 체결한 설계사에 대한 제재 실적이 미미한 경우도 있었다.

GA업계에서는 정착지원금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등 자정작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A협회는 지난해 9월 과도한 스카우트 행위 방지를 위해 GA 39개사와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58개사로 늘어났으며 18만 명 넘는 설계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달에는 자율협약 체결 1년을 맞아 대형 GA 준법·내부통제 임직원 대상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용태 GA협회장은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착지원금 정보공시의 효율적 운영과 미공시 및 허위공시의 불성실 공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강력한 제재와 모니터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승환과 관련해서도 엄격한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관제재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정착지원금 운영에 대해서는 GA에 관련 내부통제가 마련되도록 경영유의나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재은 기자 dove@

은행권 '책무구조도' 눈치싸움 끝?

내년 1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은행권이 본격 속도내기에 나섰다. 그간 은행들은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를 놓고 눈치싸움을 벌였으나 최근 잇단 금융사고로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빠른 태세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행은행은 이날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감독당국에 제출하고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를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각 임원의 책무를 규정하는 책무구조도 외에도 본점 및 영업점 부서장들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및 관리를 위해 '내부통제 매뉴얼'도 별도로 마련했다. 부서장에서 은행장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 및 보고를 위한 책무구조도 점검시스템도 도입해 임직원들의 점검 활동과 개선조치들이 시스템상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 은행권 첫 제출
내부통제 매뉴얼 별도 마련
국민은행은 전담조직 신설
하나·우리·농협도 "곧 제출"

KB국민은행도 책무구조도 도입과 관련해 적극 행보를 시작했다. 다음달 말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참여에 앞서 책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인 'KB책무관리실'을 신설한 것. KB책무관리실은 준법감시인 산하에서 책무구조도 운영 및 점검 등 은행의 책무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책무 관련 제도의 기획 및 운영 △책무 이행점검 및 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및 지원 등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 강화를 위해 조직을 신설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도 다음달 말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지주 한 관계자는 "시범 운영 참여는 이미 결정했으며, 시기와 내용 등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면서 "시기도 중요하지만 책무구조도를 잘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강석훈(왼쪽) KDB산업은행 회장이 박형준 부산시장과 23일 부산시청에서 '전력반도체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육성' 협약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KDB산업은행

KDB산업은행-부산광역시 '전력반도체단지 육성' MOU

KDB산업은행은 부산시와 '부산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공동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은행과 부산시는 특화단지 조기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력 반도체 생태계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측은 특화단지 입주 예정 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우리銀 '국가보훈등록증 비대면 진위확인' 서비스

우리은행은 '국가보훈등록증 비대면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은 5월 국가보훈부, 금융결제원과 '국가보훈등록증 금융거래 활용' 업무협약을 맺고 기존 15종의 국가유공자증 등을 하나로 통합한 국가보훈등록증을 비대면 금융거래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처음으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우리원(WON)뱅킹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비대면 진위확인을 거쳐 계좌 개설 및 모바일뱅킹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은 이용자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신분증 위변조 탐지 및 안면 인식 기술을 적용했다. 비대면 진위는 우리WON뱅킹에서 상품 가입 등 금융서비스 선택 시 △휴대폰 번호 인증 △국가보훈등록증 촬영 인증 단계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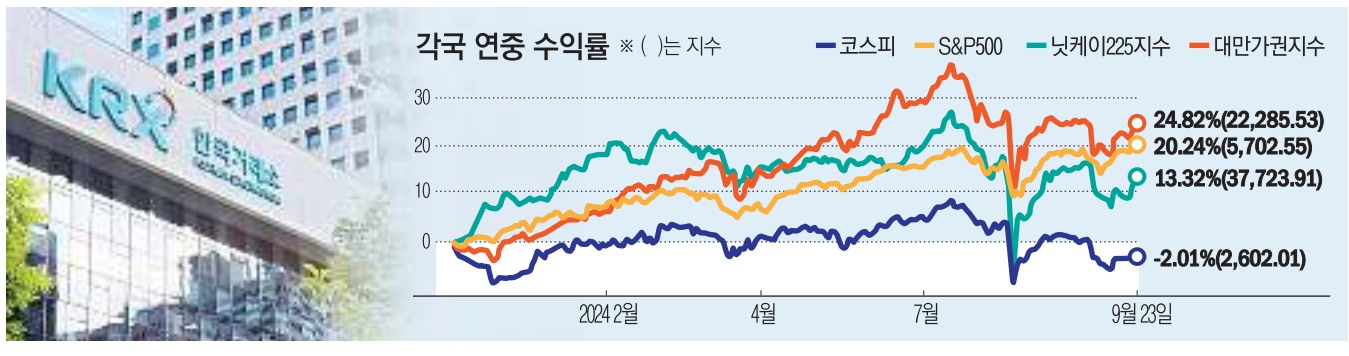
문선영 기자 moon@

'저평가 늪' 빠진 韓증시… K밸류업지수 약발 먹힐까

'코리아 밸류업지수' 오늘 발표

코스피 연초대비 수익률 -2%
S&P500·대만 등은 20%대 상승
이달 외국인 6조원어치 순매도

상장사 과반, 3분기 실적 상향
美서 의약품·금융·통신 '훈풍'



'미국의 나비효과'

미국의 작은 변화에 한국이 큰 영향을 받았을 때 주로 소환되는 관용어다. 국내 주식시장이 외부 요인,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에 취약한 까닭에 통용된다.

정부의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중 하나인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24일 발표되지만, 외국인은 발을 빼고, 코스피·코스닥 시장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한국 증시의 근본적인 체질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의 연초 대비 수익률은 -2.01%다. 올해 상승 곡선을 그린 대부분 국가의 지수와 다르게 코스피는 하락한 모습이었다. 23일까지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0.24%,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13.32%, 대만 가권(자취안) 지수는 24.82%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 침체의 원인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해소가 요원하다는 점을 꼽는다.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희미해진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기대, 저조한 영업이익, 부실한 수급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나온 결과라는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에는 모두가 동의하나 일정한 방향성이 없어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는 듯하다. 지배구조(거버넌스)가 좋거나, 주주환원율이 높거나 지속 성장 가능한 모델이 있으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 위주로 수급이 쏠리게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수급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점도 문제다. 특히 외국인이 떠나고 있다. 올 초부터 이어진 밸류업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뀐 영향으로 해석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6조 7500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 내 외국인 순매도가 차별화되고 있는 점이 위안 삼을만하다고 전했다.

그나마 실적 기대가 살아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0일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265개 코스피·코스닥 시장 상장사 중 과반인 145곳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달 전과 비교해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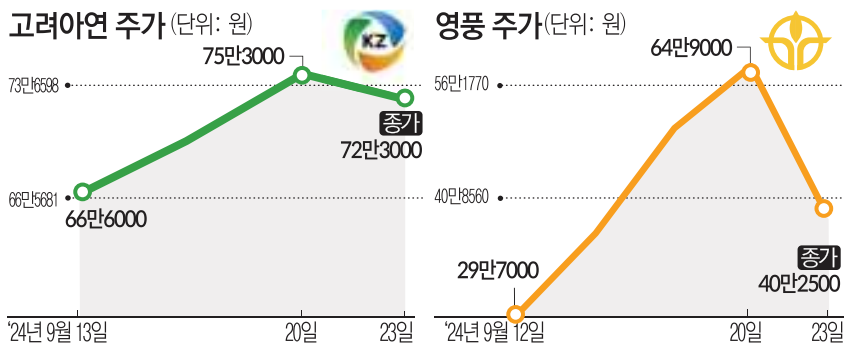
민병규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최근 외국인의 한국 증시 순매도가 지속하고 있지만, 그 강도는 주변국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며 "한국, 일본, 대만 순으로 순매도 금액이 많으며 하반기 외국인 순매수가 진행 중인 의약품, 금융, 통신 업종은 미국에서도 아웃퍼폼 중"이라고 분석했다.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 활성화도 과제다. 맥쿼리증권은 편입 종목으로 메리츠금융그룹과 한미반도체, HD현대일렉트릭, 맥쿼리코리아인프라스트럭처펀드, LG이노텍, 한국항공우주산업, 코웨이, 삼성E&A, 한진칼 등을 꼽았다. 또 한미약품, LIG넥스원, 삼양식품, 오리온, 한미사이언스, 에스원, F&F, 제일기획, 이수페타시스, BGF리테일, 한전KPS, DB하이텍 등도 편입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정호 기자 godot@

개미 투심은 어디로?… 영풍 29%↓·고려아연 1%↓

기자회견 하루 앞두고 희비
고려아연 백기사 모집 주목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에 나선 영풍 주가가 23일 29% 넘게 급락했다. 고려아연은 1%대 하락에 그쳤다. 개미들의 투자심리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 기운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영풍은 전 거래일보다 16만7500원(29.39%) 내린 40만2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29.82% 하락한 40만 원까지도 내려갔다.

경영권 분쟁이 지난 13일 본격화한 이후 4거래일 만에 첫 하락이다.

지난 12일 종가 기준 29만7000원이었던 영풍 주가는 다음날부터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단숨에 50만 원대로 올라섰다. 지난 20일에도 13.77% 상승하며 3거래일 만에 주가가 91.9% 치솟았다.

고려아연은 전장 대비 1만2000원(1.63%) 내린 72만3000원에 마감했다. 여전히 공개매수가인 66만 원은 넘긴 상태다.

고려아연도 지난 13일부터 3거래일 연속 오르며 주가가 32.2% 뛰었다.

주요 관계사로 역시 공개매수가 진행 중인 영풍정밀은 전 거래일 대비 4.14% 오른 2만1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영풍정밀 공개매수가는 1주당 2만 원이다.

고려아연은 전날 영풍이 중대재해로 대표이사 2명이 모두 구속된 특수 상황에서 MBK파트너스와 자사 지분 공개매수에 나서는 중대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영풍은 자료를 내고 "고려아연 주식 공개 매수 등의 결정은 적법한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영풍의 경영권 인수 시도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

기자회견에는 고려아연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이제중 부회장과 핵심 기술 인력 등이 나설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고려아연 측은 영풍과 MBK가 제기한 최 회장에 대한 각종 의혹과 경영상 문제 제기 등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영풍·MBK의 경영권 인수 시도의 부당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MBK와 영풍의 공개 매수 시도는 국가기간산업인 비철금속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이차전지 배터리 공급망의 원소재 핵심 기업인 고려아연을 노린 사모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라며 "이로 인한 고려아연의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은 자사 주요 주주인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과 최근 회동하는 등 '백기사'(우호 세력) 구하기에도 적극적이다.

정회인 기자 hihello@

렉라자 美FDA 승인따라 유한양행 올들어 2배 '쑥'

주가 1.93% 오른 14만8200원
"목표주가 22만원으로 상향조정"

유한양행의 주가가 올해 들어 2배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부진한 국내 증시 흐름 속에서도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서 기대감을 모은 영향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전 거래일 대비 1.93% 오른 14만82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올 초(6만7800원) 대비 두 배 이상 뛴 수치다.

유한양행의 항암 신약인 '렉라자(레이저티닙)'가 존슨앤드존슨의 리브리반트와의 병용요법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은 영향이다. 국산 항암제가 FDA의 허가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조병철 연세암병원 폐암센터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유한양행 IR설명회에 참석해 "FDA 승인의 중요한 조건인 글로벌 임상 시험을 통과한 암 표적치료제는 경쟁사의 타그리소를 제외하면 렉라자뿐"이라며 "렉라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은 1200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에 돌입해 결과를 냈고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그리소와 렉라자는 기본적으로 차이는 없지만 렉라자가 기침, 가래, 흉통 등 암과 관련된 증상이 나빠질 때까지의 기간이 타그리소 대비 2~3개월 더 좋다"며 "올해 말 늦어도 내년 발표될 병용요법의 최종 임상 mOS(전체 생존기간) 값 결과도 고무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양행의 전망은 앞으로 더 밝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다. 권해순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유한양행은 레이저티닙의 글로벌 판매뿐만 아니라 유망한 HIV 치료제 신약 원료를 장기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진 국면에 진입했다"며 목표주가를 2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약업종의 최우선 종목으로 추천했다.

김효숙 기자 ssook@

토스증권 '리서치센터' 출범

개인투자자 중심 리포트 발간
'미국통' 합류…해외시장 분석력↑

토스증권이 리서치센터를 출범한다고 23일 밝혔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는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리포트를 발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토스증권은 리포트에서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데 공을 들였다.

또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최적화 기능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리포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핵심 애널리스트들은 국내외 주요 증권사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올해 모건스탠리를 거친 '미국통' 전문가가 합류해 해외 시장 분석력도 크게 높였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는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 확대에 발맞춰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분석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실제 토스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공개된 첫 리포트 주제도 '왜 미국 주식인가'다.

리포트는 별도의 로그인 없이 토스증권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 있는 리서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MTS에서는 고객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축약된 버전으로 확인 가능하다.

이영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국내에서는 경험하기 힘들었던 개인 친화적인 리포트를 꾸준히 선보일 예정"이라면서 "미국 기업을 직접 탐방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감 있는 리포트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슈로더그룹, 신임 대표에 리차드 올드필드 CFO

PwC서 30년간 재직… 작년 입사



슈로더투자신탁운용은 슈로더 그룹이 리차드 올드필드〈사진〉 슈로더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신임 대표이사로 지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슈로더투자신탁운용에 따르면 올드필드 지명자는 글로벌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서 30년간 재직하며 네트워크 부회장, 전략·커뮤니케이션 대표와 글로벌 시장 대표를 역임했다.

올드필드 지명자는 재무 성과와 고객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포함해 전략적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국가별 팀을 조직해 이끌었다. 글로벌 시장 대표 시절에는 직속 팀을 조직해 고객 대면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전 세계 고객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들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드필드 지명자는 지난해 슈로더에 입사한 후 CFO로서 회사 전체 재무 경영을 책임지며 리스크 관리와 자본 및 자금 운용 등을 직접 관장했다. 연초에는 신규 채권 발행 등 신사업을 추진했고 슈로더 그룹 전체에 걸쳐 상업적 규율을 내재화했다.

올드필드 지명자는 "슈로더는 장기적 관점으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고, 탁월한 투자 성과를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이라며 "무엇보다 슈로더는 업계의 어려움에도 기회를 포착해 사업을 성장시키고, 고객의 부 창출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윤혜원 기자 hwyoon@

“매물 감소? 강남 얘기죠”…대출 틀어쥐자 매물 적체 가속

한달새 마포 6%↑ 용산 5.7%↑
일부 단지는 50% 안팎 늘기도
집값상승기, 가격 떨어지진 않아

강남선 호가 올리려 매물 거둬
연일 신고가 거래도 잇따라

지난달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가 시작되며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 매물 적체에 시동이 걸렸다.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등 일부 집값 급등 지역에선 추가 상승을 기대해 매물을 거두는 현상이 눈에 띄지만, 나머지 지역은 대출 규제 영향권에 든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8만598건으로 전월(8만35건) 대비 0.7%(563건) 증가했다.

올 5월 8만5595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거래량이 늘며 지난달 7만6629건까지 내려왔으나 이달 들어 5000여 건 뛰었다. △마포구 6.0%(2820건→2992건) △용산구 5.7%(1729건→1829건) △강북구 4.10%(1387건→1445건) 등이 전월 대비 증가폭 확대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마포구 상암월드컵파크4단지는 한 달 사이 매물이 68.9%(29건→49건) 늘었다. 같은 기간 도봉구 창동주공3단지는 70건대에 머무르던 매물이 103건으로 47% 급증했다.

매물 증가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들의 공통된 견해다. 상암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호가가 많이 오른 상태라 입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매물은 4~5개뿐”이라며 “전반적으로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와중에 대장홍대선 상암역 신설이 확정된 호재도 있어 가격이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북구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대출 규제 시행 전인 7~8월 매물이 한바탕 빠진 뒤 지금은 호가가 오른 물건들만 남았다”며 “매수를 염두에 둔 단지가 생각보다 비싸서 눈을 더 낮추는 이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강남권에선 여전히 추격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강남3구 주요 지역에선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호가를 올리기 위해 내놨던 매물을 다시 거두는 사례도 빈번히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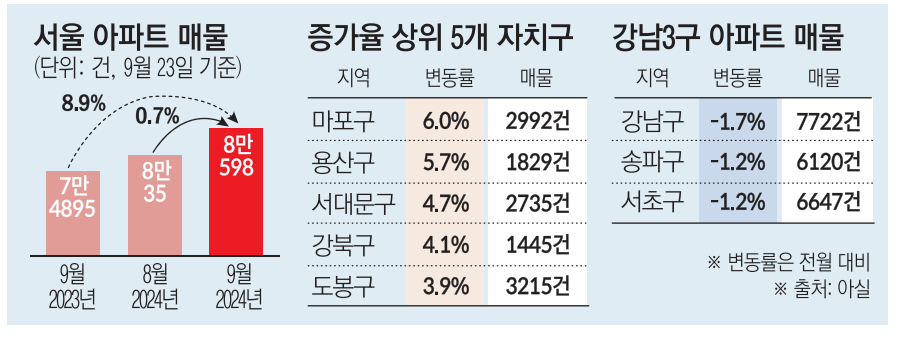
서초구 반포동 B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려놨던 매물을 내리거나 계약금이 오고 가기 직전에 마음을 바꾸는 매도인도 수두룩하다”며 “매물이 늘어났다는 건 시세차익을 노린 일부 재건축 예정 단지 얘기일 뿐 대부분의 매수 희망자들은 맘에 드는 매물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강남3구에선 연일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이달 5일 래미안원베일리 ‘국민평수’ 84㎡(이하 전용면적)이 60억 원(9층)에 손바뀜했다. 국평 기준 역대 최대 매매가로 직전 신고가(55억, 23층)보다 5억 원 높다. 인근 래미안퍼스티지 동일 면적은 직전 신고가(38억4000만 원, 26층)를 기록한 지 두 달 만인 7월 43억 원(17층)에 팔렸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효과가 본격화하는 시점부터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가격의 상승을 견인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규제 대상 대출금액이 집값에 비해 높지 않아 오히려 매수 수요가 더 나타날 수 있다”며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일수록 규제 효과가 점진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



증가율 상위 5개 자치구

지역	변동률	매물
마포구	6.0%	2992건
용산구	5.7%	1829건
서대문구	4.7%	2735건
강북구	4.1%	1445건
도봉구	3.9%	3215건

강남3구 아파트 매물

지역	변동률	매물
강남구	-1.7%	7722건
송파구	-1.2%	6120건
서초구	-1.2%	6647건

※ 변동률은 전월 대비
※ 출처: 아실



노약자·외국인도 지하 주차장서 길 찾기 쉽게
현대건설, 특화 디자인 ‘히어 앤 썸웨어’ 개발



현대건설의 유니버설 디자인 웨이파인딩 시스템이 적용된 주차장 이미지. 사진제공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 주차장에 노약자와 외국인 등 누구나 쉽게 위치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특화 디자인을 선보인다.

23일 현대건설은 정보의 직관성과 인지성을 높여 길 안내를 돕는 ‘히어 앤 썸웨어(Here & Somewhere)’를 개발해 내년부터 힐스테이트 지하 주차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히어 앤 썸웨어는 성별·연령·국적·장애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쉽고 명료하게 정보를 이해하도록 돕는 유니버셜 디자인(UD)에 특정 구역 내에서 길 안내 역할을 유도하는 웨이파인딩(WS) 기능을 결합했다.

현대건설의 유니버셜 디자인 웨이파인딩 시스템(UDWS)은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색약자들도 구분하기 쉬운 배색을 했으며 가독성과 식별력을 높인 폰트로 노안이나 저시력자의 직관성도 고려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어린이나 외국인도 다양한 픽토그램을 통해 직접적 정보를 이해하도록 인지성을 강화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노령화, 다민족화 등 사회적 변화가 가속하는 가운데 히어 앤 썸웨어가 다양한 입주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며 “색약자, 외국인, 노약자 등 거주민 모두를 고려한 섬세한 서비스로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조사
DL이앤씨 ‘아크로’ 4회 연속 1위

‘써밋’ ‘르엘’ ‘디에이치’ 뒤이어

국내 건설사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중 DL이앤씨 ‘아크로(ACRO)’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은 전국 10~50대 남녀 1만6710명을 대상으로 ‘2024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호도 1위에 DL이앤씨 ‘아크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DL 이앤씨 ‘아크로’를 선택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2.2%에 달했다. 이어 대우건설 푸르지오 ‘써밋’(21.5%), 롯데건설 ‘르엘’(20.5%), 현대건설 ‘디에이치’(15.7%) 등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아크로’는 고객 선호도 조사를 시작한 이래 4회 연속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1위를 기록했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모든 연령대와 성별에서 선호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응답자의 경우 각각 42%가 ‘아크로’를 꼽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 42%, 30대 43%, 40대 42%, 50대 39% 순으로 선택했다. 아파트 실수요자인 30~40대 사이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하이엔드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지속하는 가운데, 2030세대 등 젊은 층에서도 고급 단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디자인, 인테리어를 중시하는 고객이 많은 만큼 하이엔드 아파트를 찾는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KLPGA | LADIES ASIAN TOUR SERIES

Hana Financial Group Championship

2024.9.26(목) – 29(일)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



A'REX Airport Railroad

공항철도를 이용하여 청라국제도시역 (하나금융타운)으로 오시면 갤러리 티켓 교환권을 드립니다.

※ 해당 티켓 교환권으로 입장 시 갤러리 경품 응모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주 관 KLPGA Korea Ladi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방 송 SBS Golf
장 소 Bear's Best CheongNa
기획/운영 Prain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핀크 |

진보-보수 '후보 단일화' 잡음… 독자 출마 변수도

서울교육감 보선 혼란 속으로

진보 진영 경선서 곽노현 탈락
강신만·정근식·홍제남 '3파전'
경선 불참 후보들 "독자 출마"

보수 진영 내일 단일후보 결정
조사 방식 두고 후보 간 신경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진보와 보수 진영이 '필승 카드'로 꼽히는 후보 단일화에 전력을 쏟고 있지만 '독자 출마' 의지를 내비치는 후보들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유력한 단일화 후보로 꼽히던 곽노현 전 교육감이 경선에서 탈락하고 다른 3명으로 후보가 압축된 가운데 독자 출마를 선언한 후보가 또 다른 단일화 회의체를 만들겠다고 나서며 다시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보수 진영은 25일 단일 후보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은 후보를 중심으로 여론조사 방식의 후보 단일화에 반발하는 기류도 포착된다.

23일 곽 전 교육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서 선거운동을 접지만, 이번 선거의 본질로 규정한 윤석열 정권의 교육정책 탄핵, 정치검찰 탄핵, 몸통 그 자체의 탄핵이라는 3중 탄핵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진보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주도하고 있는 '2024서울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추진위)'는 1차 경선 결과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 등 3명으로 후보가 추려졌다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이력과 조직력 등 이유로 진보 진영의 유력 주자로 꼽혔지만, 도덕성 논란 등으로 경선에서 탈락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추진위는 24~25일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단일 후보를 추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김재홍·조기숙·방현석·최보선 등 후보 4명이 추진위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출마하겠다고 밝혀 진보 진영에서 단일 후보가 추려질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단일화를 위한 회의체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움직임도 나왔다. 이날 방현석 중앙대 교수는 "단일화 방안으로 '범민주단일화회의'를 공개적으로 제안한다"면서 "정책토론회와 시민배심원단 투표 등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뜻을 물어 단일후보를 선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감 선거 출마 의사를 철회한 김경범 서울대 교수는 방 교수 후보 캠프에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음을 밝히며 "추진위는 후보들의 합의안을 무시하고 추진위의 원안대로 단일화를 진행했다"며 "단일화 과정의 대의는 단순한 선거공학이 아니라 새로운 진보 교육의 가치를 만드는 데 있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에서도 단일 후보를 25일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잡음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주도하고 있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 등 3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거쳐 25일 단일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전날 안 전 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처음 출마해 인지도가 낮은 후보에게 불리한 불공정 조사"라고 반발했고, 조 전 의원은 "단일화를 깬다는 협박으로 통대위를 넘어 우리 중도우파 단일화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서울시민의 기대를 깨는 일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받아쳤다.

정당의 공천이 없어 후보 난립이 불가피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는 필승 조건으로 여겨진다. 앞서 2014년부터 2018년, 2022년까지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해 조희연 전 교육감에게 패한 바 있다. 양쪽 진영이 모두 단일화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독자 출마' 후보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정유정 기자 oiljung@



응급실 정상화는 언제쯤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에 경증환자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쟁때 군경, 언론사 기자 총살
유족, 손배소… 法 "3.8억 지급해야"

'공산당 거두' 이유로 사후 암매장
"중대 인권침해, 소멸시효 미적용"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또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단독(김혜선 부장판사)은 최근 화순 군경 민간인 희생자 A 씨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들에게 총 3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에 거주하며 동광신문사, 호남신문사 부장으로 재직하던 A 씨는 1951년 2월 11일 군인 2명과 문관 2명에 의해 자택에서 연행됐다. A 씨가 이른바 '공산당의 거두(巨頭)'라는 이유였다. 이들은 A 씨를 전남 화순군에 있는 큰정굴로 끌고 가 총살한 뒤 암매장했다. A 씨의 유족들은 사건이 발생한 지 7여 년 후에야 A 씨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

문관 2명은 A 씨의 살인을 방조한 죄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군인 2명은 별다른 처벌 없이 다른 자대로 배치받았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광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 규명 신청을 받아 조사한 결과, 지난해 7월 A 씨가 국군에 의해 희생됐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군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인 A 씨를 살해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A 씨 희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 원고들이 소를 제기했으므로 손해배상채권 시효는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구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8월 헌법재판소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조작 의혹 사건 등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자료로 희생자인 A 씨에게 2억 원, A 씨의 배우자에게 1억 원, A 씨 자녀 4명에게 각 2000만 원을 산정했다.

전아현 기자 cahyun@

김복형 "정치 중립 유지·헌법적 가치 수호"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식

"헌재 결정 치열한 고민의 산물
사회적약자 목소리 귀 기울일것"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께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하나가 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의 헌법에 기초한 치열한 고민의 산물임을 믿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 과거에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많이 요구됐지만 최근에는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이 증가하면서 정치적 갈등 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 재판관은 정치적 중립 유지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약속했다. 그는 "저는 지난 29년 동안 법관으로서 그래왔듯이, 앞으로의 6년 동안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권력분립의 원칙,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에 따라 어떤 길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기본권 등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직분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재판관은 이어 "세대·지역·성별·이념 등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주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며 "헌법연구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며, 사무처 직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헌법재판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애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취임한 김 재판관은 이달 21일 공식 임기를 시작해 2030년 9월 20일까지 6년간 직무를 수행한다.

김 재판관은 경남 거제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을 통과한 뒤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등을 거치며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에만 매진했다. 2008년 여성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대법관실 소속 전속연구관에 보임된 이력도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반갑다! 가을…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져

비가 그친 후 늦더위가 물러가면서 앞으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내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20도대를 기록하면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기온은 11~21도, 낮 최고기온은 22~29도로 예보됐다.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은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 강원 내륙·산지는 10도 안팎으로까지 떨어졌다.

주말 사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진 것은 한반도에 영향을 줬던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이동하고 북쪽의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이다.

늦더위가 가시면서 이번 주부터 선선한 가을 날씨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주 내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20도대에 머물겠다.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도 13~23도, 낮 최고기온은 21~30도로 예보됐다.

다만 낮과 밤사이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질 것으로 보여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라면서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채빈 기자 chaebi@

안방극장 새 기준 제시한 '더 프리미어 9·7'

SAMSUNG

삼성전자가 최신 혁신 기술을 고루 갖춘 프리미엄 가정용 프로젝터 '더 프리미어' 신제품으로 홈 시네마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는 평가다.

신제품은 더 프리미어 9과 더 프리미어 7이다. 선명한 4K 해상도, 몰입감 넘치는 사운드, 스마트 기능이 모두 결합했다. 각각 최대 130형, 120형까지 스크린을 확장할 수 있다. 또 초단초점 기술을 탑재해 복잡한 설치 과정 없이 벽 앞에 설치할 수 있다.

더 프리미어 9는 트리플 레이저 기술을 지원해 최대 3450 ISO 루멘 밝기를 지원한다. 더 프리미어 7은 싱글 레이저 기술을 지원해 최대 밝기는 2500 ISO 루멘 밝기를 지원한다.

더 프리미어 9과 더 프리미어 7은 각각 DCI-P3 기준 최대 154%, 100% 색을 표현한다. 두 모델 모두 HDR10+를 지원해 밝은 환경에서도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구현한다. 또한 인공지능(AI) 업스케일링과 비전 부스터 기술을 탑재, 기존 화질과 관계없이 4K 해상도로 업스케일링하며, 주변 조명 환경에 따라 색깔과 대비를 자동 조정한다.


삼성전자 '더 프리미어 9' 제품 이미지. 사진제공 삼성전자

아울러 돌비 애트모스 기술이 적용된 내장 스피커를 통해 별도의 음향 기기 없이도 뛰어난 오디오 경험을 제공한다. 더 프리미어 9은 40W 2.2.2 채널 업파이어링 스피커, 더 프리미어 7은 30W 2.2ch 스피커를 탑재했다.

더 프리미어는 삼성 타이젠 OS를 탑재해 삼성 TV 플러스, 넷플릭스, 유튜브,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 광범위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다.

AI로 新성장동력 창출… 글로벌 위기 타개

SK

SK그룹은 글로벌 지정학적 문제와 불확실성 증가 속에서도 인공지능(AI) 뉴테크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위기를 타개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SK텔레콤이 글로벌 통신사들과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SK에코플랜트가 소각로·수처리시설 운영에 AI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SK텔레콤은 미국 GPUaaS(서비스형 GPU) 기업 람다(Lambda)와 12월 서울에 AI 데이터센터를 연다. 양사는 안정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을 바탕으로 한 GPUaaS 사업 확대, 람다의 한국 리전(Region·지역 거점) 설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략적 협업을 강화한다. SK텔레콤은 AI 시장 성장에 따라 국내 GPU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3년 안으로 GPU를 수천 대 이상 늘리고, 최신 GPU 모델인 'H200'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산 데이터센터를 시작으로 엔비디아 단일 GPU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GPU 팜'을 확충하는 것이 목표다.


SK에코플랜트의 인공지능(AI) 솔루션을 적용해 운영 중인 수처리시설 전경. 사진제공 SK그룹

SK에코플랜트는 소각로·수처리시설 운영 최적화 솔루션에 자동 운전이 가능한 AI를 적용했다. 이 기술은 AI가 설비를 직접 조작하는 이른바 '자동 운전'이 가능하다.

SK에코플랜트가 소각로와 수처리시설에 적용한 AI 역시 운전자의 판단이나 개입이 필요 없고, AI가 현재 상황에 맞는 조작 방법을 판단하고 수행한다.

'무도장 복합재 성형기술' 통해 脫탄소 앞장

HYUNDAI MOTOR GROUP

글로벌 산업계에서 '탄소 중립'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은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환경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최근 양산 적용을 시작한 '무도장 복합재 성형 기술'이 대표적이다. 이 기술은 플라스틱 복합재를 활용해 별도의 도장 작업 없이도 차량 외관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차세대 제조 공법이다. 투명층과 컬러층이 적층된 컬러 원소재를 활용해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기존에는 차체 외관을 제작하기 위해 차체와 같은 색을 입히는 도장 공정과 샌딩 작업이 필요했지만 무도장 복합재 성형기술을 활용하면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차체 도장 공장은 자동차 제조 공정 가운데 에너지 소비량 40%를 차지하는 만큼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을 모두 줄일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 기술을 현대차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 모델 'ST1 카고'의 루프 스포일러에 최초로 적용했다. ST1 카고에 적용된 루프 스포일러의 복합 소재는 기존에 사용하던 섬유 강화 플라스틱(FRP) 대비 무게가 20% 이상 가벼워 전비 향상에도 도움된다.


무도장 복합재 성형 기술이 적용된 ST1 루프스포일러. 사진제공 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은 무도장 복합소재 기술이 성형 자유도가 높고 다채로운 컬러 구현이 가능해 다품종 소량 생산이 필요한 부품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초거대 AI 엑사원' 활용 계열사 난제 해결

LG

LG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빅데이터 기술을 확보하고, 대규모 연구개발(R&D) 추진을 위해 'LG AI연구원' 중심의 투자와 연구를 가속하고 있다.

특히 초거대 AI 'EXAONE(엑사원)' 개발에 집중해 계열사의 난제 해결을 돕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종 산업 분야와의 협업 또한 늘려 AI 리더십을 조기에 확보할 계획이다.

LG AI연구원은 지난달 LG의 최신 AI 모델 '엑사원 3.0'을 오픈소스로 공개한 바 있다. 엑사원 3.0은 지난해 7월 공개된 이전 모델 '엑사원 2.0' 대비 추론 처리 시간은 56%, 메모리 사용량은 35% 줄이고, 구독 비용은 72% 절감하는 등 성능과 경제성 모두 뛰어난 결과를 보였다.

LG AI연구원은 2021년 12월 거대언어모델(LLM) '엑사원 1.0'을 발표한 이후 지난해 7월 '엑사원 2.0'을 공개하는 등 3년간 생성형 AI를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해 왔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ACL 2024'에서 '엑사원 3.0'과 '챗 엑사원'을 직접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LG

이번 엑사원 3.0은 특허와 소프트웨어 코드, 수학, 화학 등 국내외 전문 분야 데이터 6000만 건 이상을 학습했다.

LG AI연구원은 연말까지 분야를 더욱 확장해 전문 데이터양을 1억 건 이상으로 늘려 성능을 계속 끌어올릴 방침이다.

보행로봇 등 스마트 기술 접목 안전성 'UP'

posco

포스코는 디지털 전환(DX)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가운데, 제철소에 특화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제철소에서는 주기적인 설비 점검이 필수적이지만, 일부 설비는 접근이 어렵고 위험성이 높아 작업자의 안전이 우려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스코는 로봇 하드웨어, 제어 소프트웨어, 스마트 센서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합한 4대 로봇 솔루션(고정형, 이동형, 원격운전,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4족 보행 로봇은 사람 대신 고온 가스 분진이나 화상 위험이 있는 고위험 지역에서 설비를 점검한다. 이 로봇은 장애물에 제약이 적어 자율 주행으로 설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상황을 감지한다.

다양한 로봇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로봇 편대 자율운전 통합관제 플랫폼(PosRX)도 개발했다. 이동로봇의 자율·원격 운전과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합 관리한다. 고온·밀폐 공간의 설비를 무인으로 점검할 수 있게 한다.


관계자가 사무실에서 4족 보행 로봇을 원격 제어하고 있다. 사진제공 포스코

포스코는 LG전자와 협업해 지하 전기실의 원격 자율 점검 모바일 로봇 기술 사전 검증에도 성공했다. 이 로봇은 자율 주행으로 전기실 곳곳의 설비를 점검하고 자료를 수집해 관제실로 전송한다.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지게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게차 안전제동 AI 시스템'도 개발했다.

우주항공·친환경에너지… 미래 선제투자

Hanwha

한화그룹은 우주항공과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 투자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정도 경영을 실천하며 우수 인재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 맞춰 선제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고도화 사업의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을 수주해 2027년까지 총 4차례의 누리호 발사를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민간 우주 수송 사업의 상업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화시스템과 쎄트렉아이 등 계열사들은 위성 통신 서비스와 위성 데이터 서비스 사업을 확장하며 우주 산업의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한다. 한화솔루션의 한화큐셀은 주요 태양광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 조지아주에 3조2000억 원을 투자해 솔라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차세대 고효율 태양광 셀인 탠덤 셀의 양산을 추진하고 전력 솔루션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 사진제공 한화

한화오션은 세계 최초로 '로터세일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친환경 선박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로터세일은 선박이 운항할 때 불어오는 바람과 회전하는 원기둥에서 발생하는 마그누스 효과로 추진력을 추가로 얻는 풍력 보조 추진장치다.

직원 85% AI 사용 경험… 디지털 혁신 시동

GS그룹은 직원들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을 지원하며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GS그룹이 'GS GenAI 커넥트 데이(Connect Day)'에 참가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85%가 "챗GPT 등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52%는 생성형 AI 관련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사용해 데이터 분석 등 업무에 활용했다. 25.5%는 GPT 등을 활용한 업무 지원 응용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이를 활용한 업무 개선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줬다.

GS그룹은 IT 전문가 중심의 디지털전환(DX) 활동을 사업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1월에는 각 계열사의 DX 담당 인력 약 40여 명을 모아 합동 근무를 시행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고객 고충 해결 프로토타입 경진대회를 열었다. 이후 이들은 각 계열사로 돌아가 현장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고위 경영진 차원에서는 사장단이 모두 참여하는 AI 디지털 협의체를 매 분기 개최한다. 사장단이 직접 생성형 AI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과 혁신 사례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1월 열린 2024 GS 신사업 공유회에서 허태수 GS그룹 회장이 직접 계열사 사장단과 함께 신사업 진행 현황과 전략을 공유하기도 했다.



GenAI가 만든 GS GenAI 커넥트데이 행사포스터. 사진제공 GS그룹

GS그룹은 이처럼 생성형 AI와 신기술을 도입해 업무 혁신과 신사업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경기 침체와 사업 환경의 악화를 극복할 방침이다.

통제센터 재정비… 난기류 대비 항로 최적화

대한항공은 안전 운항을 최우선 가치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난기류의 발생 빈도가 늘어나며 이에 대한 대응책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대한항공은 '잠들지 않는 지상의 조종실'이라 불리는 종합통제센터(OCC)를 최신식 설비로 리모델링하고 난기류를 모니터링, 대응하고 있다. OCC에는 운항 중인 항공기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전화기가 설치돼 비정상 상황 시 이 전화기를 통해 운항 승무원에게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즉각 대응할 수 있다.

또한 OCC는 예측되는 난기류를 피할 수 있는 최적의 항로를 선정한다. 목적지로 가는 수많은 경로 중 가장 안전한 항로와 고도를 찾아 비행계획을 세우고,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가 감지되면 항공기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해당 경로를 지날 항공기들과 공유해 사고를 피하도록 돕는다.

아울러 수년간 축적된 기상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활용해 개발한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정확한 기상 예측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항공기 제방빙(겨울철 항공기 동체에 생기는 얼음을 제거 또는 예방하는 작업) 작업을 위해 개발한 '서리 예측 프로그램'이 그 예다. 이 프로그램에 공항명과 기온, 습도, 풍속 등을 입력하면 서리 확률과 필요한 작업 대 수를 예측한 결과물이 제공된다.


대한항공 본사 A동 8층에 위치한 종합통제센터(OCC) 모습. 사진제공 대한항공

이밖에 대한항공은 예상치 못한 난기류에도 더욱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난기류 인식 플랫폼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스마트팩토리 구축 총력… 생산성 극대화

효성은 각국의 생산기지에서 안정적인 품질로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효성티앤씨는 중국·베트남의 스판덱스 공장에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해 글로벌 공장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품질을 관리한다. 또한 원료 수입부터 생산, 출하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에서 데이터 수집과 분석, 제어 관리 등을 수행한다.

효성첨단소재는 2017년부터 디지털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자동화와 지능화를 통해 최고의 생산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해 전 공장과 협력하고 있다. 2020년 베트남법인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가동률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설비 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은창원공장에 생산관리시스템(MES)과 IoT 기반의 스마트팩토리를 구현해 공정별 작업 상황과 작업자에 따라 작업 계획이 변경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이렇게 수집·분석한 데이터를 품질관리, 공정관리, 설비관리 등에 활용한다.


효성 베트남 공장에서 직원들이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진제공 효성

효성화학은 제조 관련 모든 자원을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수집된 데이터에 기반해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공정모니터링시스템(PMS)과 품질관리시스템(QMS), 시각분석시스템(VAS) 등을 도입했다.

꾸준한 R&D 투자… 하반기 아라미드 증설

코오롱그룹이 시장 선도 혁신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기존 사업의 증설 투자를 통해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 사업 분야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을 확대해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솔루션 개발에 투자한다. 이를 다양한 사업장에 적용해 스마트팩토리를 확장하고 있다.

2018년 서울 마곡산업단지에 문을 연 코오롱 원앤온리 타워는 융복합 R&D의 핵심 거점으로서 그룹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에는 코오롱인더스트리와 코오롱글로텍 등이 입주해 지식 융합의 허브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최근 3년간 평균 설비투자비용의 41%에 달하는 1076억 원을 R&D에 투자하며 신성장동력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라미드 국내 1위 생산능력을 확보했으며 차별화 석유수지(PMR) 증설도 완료했다. 하반기에는 아라미드 펄프 증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 마곡동 코오롱 원앤온리 타워 전경. 사진제공 코오롱그룹

코오롱ENP는 세계 최대 규모의 POM 생산능력을 갖추고, 친환경 제품으로 의료·음용수용 특화시장에 진출했다. 또한, 전기차용 경량화 소재 개발에도 주력하며 친환경 브랜드 'ECO'를 론칭해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고 있다.

가전업계 최초 스마트홈 허브에 AI 탑재

LG전자가 전 세계 수억 대의 제품에서 얻은 데이터와 혁신 기술을 앞세워 인공지능(AI) 시대에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LG전자는 기존에 강점이 있던 가전 제품 중심의 AI 전방 영역뿐 아니라 인프라에 해당하는 후방 영역 확장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최근 스마트홈 관련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달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4에서 'LG AI홈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서 처음 공개한 'LG 씽큐 온'은 집안 가전과 사물인터넷(IoT) 기기들을 항상 고객과 이어주는 LG AI홈의 핵심 디바이스다. 가전 업계 최초로 허브에 생성형 AI를 탑재했다.

LG AI홈에서 고객은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듯이 씽큐 온과 음성으로 소통한다. 생성형 AI가 대화의 맥락이나 주변 환경 등을 파악해 고객을 최적의 상태로 케어하도록 가전과 IoT 기기를 제어한다.



LG전자가 IFA 2024에서 선보인 'LG 씽큐 온'. 사진제공 LG전자

최근에는 내실 강화를 위해 네덜란드 스마트홈 플랫폼 기업 '앳홈'을 인수하기도 했다.

기업간거래(B2B) 분야에서는 칠러를 주축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LG전자 칠러 사업의 최근 3년 연평균 성장률은 15%를 넘고, 해외 매출은 2배 이상으로 늘었다. LG전자는 데이터센터 냉각 시장 공략과 함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최근 새롭게 대두하는 액침 냉각 등의 신규 솔루션도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전동화 매출 12조… '존경받는 세계 기업'에

현대모비스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과 도전을 지속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다양한 고객사에 최적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라는 미래 비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집중하는 분야는 전동화다. 지난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폭스바겐으로부터 수조 원대 배터리시스템 수주에 성공하면서 전동화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전동화 사업 부문 매출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2조 원을 돌파했다.

현대모비스는 운전자 생체 신호 분석 '스마트 캐빈 제어기'와 차량 대화면이 위아래로 말리는 '롤러블 디스플레이' 등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지난해에는 제자리 회전과 크랩 주행 등이 가능한 전동화 혁신 기술인 'e-코너 시스템' 실증차 일반도로 주행에도 성공했다.


현대모비스 'e-코너 시스템' 기술이 적용된 차량이 옆으로 움직이는 크랩주행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의 이 같은 노력은 글로벌 리더십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Fortune)이 선정한 '글로벌 존경받는 기업'에 처음으로 선정됐다. 전 세계 300여 개 기업 가운데 국내 회사로는 현대모비스를 포함한 4개 기업만이 선정됐으며, 자동차 업종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유일하다.

자체 AI플랫폼으로 비즈니스 혁신 속도

롯데지주



롯데그룹 자체 AI 플랫폼 '아이멤버(Aimember)'. 사진제공 롯데지주

롯데그룹이 인공지능(AI)을 그룹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메타버스 등 신사업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간다는 청사진이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이노베이트는 최근 자체 AI 플랫폼 '아이멤버(Aimember)'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한 '아이멤버 2.0'을 새롭게 선보였다. 아이멤버 2.0은 사용자 화면(UI)을 개편하고 롯데 GPT·챗봇 품질 고도화 등 변화를 거친 데 이어 AI 모델을 업그레이드했다. 기존 라마2에서 최신 버전인 라마3으로 변경하고 미스트랄(Mistral), 솔라(Solar), 큐원(Qwen) 등 오픈소스 AI를 다양하게 적용해 AI의 답변율과 정확도를 높였다.

롯데 유통군도 AI를 업무 전반에 활용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올해 7월 '아이멤버' 기반의 대화형 챗봇을 도입해 업무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내 업무형 협업툴에도 아이멤버의 챗GPT 기능을 탑재했다. 또 롯데백화점의 웨딩 특화 서비스 '롯데웨딩멤버스'의 비주얼 제작에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다. 롯데마트도 '딥러닝(컴퓨터가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조합 및 분석해 학습하는 기술)' 기반의 AI 선별 시스템으로 고른 '아삭한 복숭아'를 국내 최초로 선보이기도 했다.

바이오 등 신사업을 기반으로 한 롯데그룹의 포트폴리오 전환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올해 7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바이오 캠퍼스 1공장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열었다.

AI가 한번에 상품추천부터 재고관리까지

emart



경기 용인시 수지구 이마트 죽전점에서 한 소비자가 장을 보고 있다. 사진제공 이마트

이마트는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T)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들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먼저 '상품 추천' 분야에 AI를 적극 활용 중이다. AI를 통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구매 패턴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필요하거나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품, 또는 고객이 선호할만한 상품을 '이마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매일 선별한 뒤 추천해준다.

고객에게 큰 혜택을 주는 이마트의 할인 행사도 AI 기술을 적용했다. AI가 사전에 할인 행사의 효과와 상품별 수요를 예측하면 이를 기반으로 바이어들이 최저가 수준의 상품을 기획하는 방식이다. 데이터 기반의 초저가 상품 선정으로 고객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적어지는 한편, 점포 운영 측면에서도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정확하게 파악할수록 상품 매입과 재고 관리 등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마트는 점포별 상품 경쟁력 확보에도 AI를 접목하고 있다. 점포가 있는 지역에 따라 고객들이 많이 찾는 품목이 다른 점에 주목했다. 이마트는 AI를 통해 지역의 특색과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해 전국 각 지역의 매장마다 최적의 상품을 갖추고 있다.

또한 고객 중심의 상품 개발과 운영을 위해 최근 '이-트렌드(e-Trend)'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트렌드는 고객들이 이마트 앱과 SSG닷컴에 남기는 상품평과 고객가치센터에 접수되는 상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월평균 80만 개에 이르는 온·오프라인 데이터를 분석한다.

상담사 대신 AI가 고객응대 '척척척'

kt


KT가 운영 중인 인공지능 고객센터(AICC). 사진제공 KT

KT가 미래 먹거리로 인공지능(AI) 고객센터(AICC)를 띄우고 있다.

AICC는 음성인식, 음성합성, 텍스트 분석, 대화엔진 등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센터 업무를 최적화하는 솔루션이다. KT는 △보이스봇·챗봇 기반 상담 자동화 △AI 상담 어시스트를 활용한 실시간 전문상담 코칭 △AI 목소리로 고객 본인인증 등으로 신속하고 유연한 고객 응대 환경을 지원한다.

특히 AI 상담 어시스트 기능엔 KT의 거대언어모델(LLM)이 적용됐다. KT는 AI 어시스트 기능을 활용해 고객과 대화 음성을 텍스트로 실시간 변환하고 요약 및 분류 등 상담 후처리를 자동화했다. LLM은 고객 문의 내용에 대한 최적의 답변을 추천해준다.

AI 목소리 인증 기술은 고객의 목소리를 성문화(Voice Print)하는 본인인증 수단이다. 고객은 상담사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10초 내로 본인 인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KT는 1만1000석 규모의 인터넷 콜센터(IPCC) 시스템이 구축된 KT 고객센터에서 8K 음성 데이터를 활용했다. KT는 유무선 하루평균 23만 건의 상담 데이터와 300만 명이 넘는 기가지니 가입자 발화 데이터로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KT는 AICC 솔루션을 AI 보이스봇 '지니'에 적용했다. 지니는 약 187종 업무의 1만2000개 FAQ 시나리오를 학습했다. KT는 AICC 솔루션에 클라우드 역량을 결합한 'KT 에이센(A'cen)'도 선보였다.

첨단 인프라 구축으로 택배 '매일 오네'

CJ



CJ대한통운 택배 '오네' 서비스. 사진제공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은 주7일 배송과 주5일 근무제를 골자로 한 '매일 오네(O-NE)' 서비스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매일 오네는 정체기를 겪고 있는 이커머스 판매자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판매자는 이 서비스를 활용해 높은 비용과 전문적인 운영을 요구하는 물류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지 않아도 주7일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주7일 서비스 시행 배경에는 경쟁사 대비 3~5년 앞선 것으로 평가되는 CJ대한통운의 첨단 물류 기술과 압도적 인프라가 꼽힌다. CJ대한통운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곤지암메가허브를 비롯해 14개 허브터미널과 276개 서브터미널을 운영하며 촘촘한 전국 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택배 자동 분류기 '휠소터'와 소형택배 특화 분류설비 '멀티포인트(MP)'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최근에는 하루 200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택배 시스템 '로이스 파슬(LoIS Parcel)'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했다.

매일 오네 도입 시 판매자는 주문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원활히 대응할 수 있다. 현재는 주말이나 연휴 기간에 주문이 들어오면 판매자가 상품을 출고하지 못한다. 이후 평일에 주문 처리 작업이 집중되면서 출고가 지연되기도 한다. 매일 오네가 도입되면 공휴일에도 배송할 수 있어 주문이 쌓이지 않고 적정하게 분산할 수 있다.

전기로-고로로 만든 후판…탄소배출 12% 뚝

HYUNDAI STEEL


현대제철이 만든 탄소저감 후판을 이용해 세아제강이 제작한 강관 구조물. 사진제공 현대제철

현대제철은 철강 본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와 함께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26일 세아제강과 협업을 통해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용 탄소 저감 후판 및 강관 구조물을 제작, 평가하고 해당 소재의 적합성을 확인했다.

현대제철이 국내 최초로 '전기로-고로 복합 프로세스'를 통해 생산한 항복강도 355메가파스칼(MPa)급 해상풍력용 후판을, 세아제강이 강관으로 가공해 조관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기존 고로재 제품과 동등한 품질을 갖춰 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번에 시험생산 및 조관평가에 성공한 탄소 저감 후판은 직접환원철(DRI) 및 철스크랩(고철)을 원료로 전기로에서 만든 쇳물과 고로에서 만든 쇳물을 혼합하는 제조방식을 통해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였다. 현대제철 자체 기준으로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을 산정한 결과 2021년 생산한 후판 대비 약 12%의 탄소배출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 과학기술청 산하 연구센터인 ARTC(Advanced Remanufacturing and Technology Center)와 함께 비전 인공지능(Vision AI) 기술개발 협력을 추진해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양사는 7월 싱가포르 ARTC 본사에서 싱가포르 개방형 혁신 시스템 기반의 AI 기술개발 협력을 위해 NDA(비밀유지계약)를 체결했다.

배터리 '건식 공정' 본격화…비용 30% 감축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이 제조하는 원통형 배터리. 사진제공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은 4분기 오창 에너지플랜트에 건식 전극 공정 파일럿(시험생산) 라인 구축을 완료했다. 2028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한다.

대부분의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을 만들 때 화학물질을 녹인 유기용매를 200도 이상에서 건조하는 습식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유기용매가 아닌 고체 파우더를 활용하는 건식 전극 공정은 배터리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차세대 제조 공법이다. 건식 전극 공정은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술이라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압도적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다루기 어려운 재료로 만들어진 양극에 건식 전극을 적용하는 것은 고도의 연구개발(R&D) 역량이 필요하다. LG에너지솔루션이 개발 중인 건식 전극 공정은 입자 크기에 상관없이 음극과 양극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건식 전극을 도입하면 배터리 제조 비용을 17%에서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의 '고객가치 역량'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건식 전극 공정 외에도 경쟁사를 압도하는 기술 리더십을 구축하고 있다. 프리미엄 제품인 하이니켈 NCMA(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경쟁 우위를 지속하는 한편, 중저가 시장 공략을 위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세상

기업은행의 가치성장 프로젝트

IBK UP TOGETHER

아티스트 발굴에서 스포츠 지원까지

IBK기업은행은

아직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 가능성의

제1호 팬이 되어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이름이 빛나는 그날을 위해

IBK기업은행의

BOOM UP

너의 가능성

이제 빛날 일만 남았어



신진작가 창작 및 전시지원

[IBK 아트스테이션]

발달장애 작가 육성 프로젝트

[IBK 드림윙즈]

사격, 여자배구, 태권도, 레슬링, 역도 등

[대한민국 스포츠발전 후원]

거침없다, 리디아 고 '제2 전성기'

크로거 퀸시티 우승…시즌 3승

올림픽 金·명예의전당 입성 확정

지난달 AIG 여자오픈 우승하며

"다음 목표는 커리어 그랜드슬램"

2022년말 현대家 며느리 된 후

연이은 우승 수확하며 재도약

최근 상황에 스스로도 "동화같다"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가 22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메인빌의 TPC 리버스 벤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크로거 퀸 시티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메인빌(미국 오하이오주)/AP연합뉴스

'현대가(家)' 며느리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한 달 만에 우승컵을 다시 들어올리며 시즌 3승째를 달성했다.

리디아 고는 23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메인빌의 TPC 리버스 벤드(파72·670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크로거 퀸 시티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에서 역전 우승으로 시즌 3승째를 달성했다.

리디아 고는 이날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7개로 9언더파 63타를 치고 최종 합계 23언더파 265타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전날까지 리디아 고보다 2타 앞선 선두를 달리던 지노 티띠꾼(태국)이 이날 2타를 줄이는 데 그친 반면, 리디아 고는 9타를 줄이며 결국 5타 차로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 1월과 지난달 LPGA 투어 정상에 올랐던 리디아 고는 이번 우승으로 시즌 3승, LPGA 투어 통산 22승을 기록했다. 또한, '2024 파리올림픽' 여자 골프에선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LPGA 투어 명예의 전당 가입도 확정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아마추어 시절부터 프로 무대를 평정하며 주목받은 리디아 고는 국내에선 2022년 12월 30일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외아들인 정준 씨와 결혼하며 현대가 며느리로 더 유명하다. 그는 "골프는 내 삶의 일부일 뿐이지 전부는 아니다"라고 했다.

2016년까지 14승을 몰아쳤지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2승에 그치며 슬럼프가 찾아왔다. 하지만 결혼 이후 연이은 우승으로 재도약했다.

이날 경기 종료 후 리디아 고는 "유럽에서 믿을 수 없는 3주를 보낸 뒤 3주를 쉬고 나왔기에 어떨지 확신이 없었다. 초반 이틀 동안 잘 쳤고, 어제는 버텼다"면서 "티띠꾼을 비롯한 많은 선수가 좋은 경기를 할 것이기에 더 나은 골프를 하고자 노력했는데, 이런 라운드로 우승을 확정 짓는 건 무척 특별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근 자신의 상황을 '동화' 같다고 표현한 리디아 고는 이날도 "시즌 중반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의심으로 가득했다"며 "지난 몇 달 동안 동화 같은 일이 일어났고, 이제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제 리디아 고의 다음 목표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이다. 리디아 고는 "이미 동화의 일부가 된 듯한 기분이 든다"며 "이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커리어 그랜드슬램은 LPGA 투어 5개 메이저 대회 중 4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것을 뜻한다. 셰브론 챔피언십(옛 ANA 인스피레이션),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US 여자오픈, 에비앙 챔피언십, AIG 여자 오픈이 이에 해당한다. 리디아 고는 2015년 에비앙 챔피언십, 2016년 ANA 인스피레이션, 올해 AIG 여자오픈 정상에 올라 메이저 대회 3개를 정복했다. 이제 US 여자오픈과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중 하나를 우승하면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

나병주 인턴기자 lahbj12@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체코에 소방차 기증



19일(현지시간) 체코 트레비치에서 열린 소방차 기증식에서 정원주(오른쪽 세 번째) 대우건설 회장이 현지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대우건설

원전 예정지 트레비치 지역협의체에…지역사회와 상생 행보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이달 19일(현지시간) 원전 예정지인 체코 트레비치를 방문해 지역협의체에 소방차를 기증하고 오찬행사에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시공 주간사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조하며 순조로운 원전 계약을 위한 지역협의체의 응원을 부탁했다.

대우건설은 올해 7월 17일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자 선정 발표 후, 정회장을 필두로 적극적인 현지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원전 예정지인 두코바니는 트레비치시 인근에 있는데, 해당 지역에는 소방시설이 부족해 화재 발생시 적극 대처가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다. 대우건설은 지역협의체인 ET 요나쉬 협회장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첫 지역 상생 활동으로 소방차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 회장은 이날 두코바니 및 트레비치 지역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대우건설이 글로벌건설사로 해외시장을 개척한 이래 50여 년간 완수해낸 500여 개의 해외실적을 부각하며, 적기준공 달성을 약속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올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2025년 3월로 예정된 발주처-한수원 간 계약이 잘 마무리되도록 시공 주간사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글로벌 대우'의 명성에 부합하도록 체코 산업계 인사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리 기자 truth@

강원 태백 독거노인 가구 50곳 새마을금고, AI 반려로봇 지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강원 태백시청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가구 50곳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반려로봇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11일 진행된 전달식에는 이상호〈사진 왼쪽 네 번째〉 태백시장과 한상기〈다섯 번째〉 새마을금고중앙회 강원지역이사, 천종철 새마을금고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김석수 태백새마을금고 이사장, 고재학 화광새마을금고 이사장,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새마을금고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 4곳의 인구감소지역에 총 200여 대의 반려로봇을 지원한다.

정상원 기자 jsw@·사진제공 새마을금고중앙회

북한여자축구, 일본 꺾고 U-20월드컵 세번째 우승



북한 여자축구 대표팀이 콜롬비아 보고타 에스타디오 네메시오 카마초에서 열린 FIFA U-20 여자 월드컵 결승전에서 우승한 뒤 시상식에서 환호하고 있다. 보고타(콜롬비아)/AP연합뉴스

북한 20세 이하(U-20) 여자 축구 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월드컵 통산 세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북한은 23일(한국시간) '2024 국제축구연맹(FIFA) U-20 여자 월드컵' 결승전에서 일본을 1-0으로 이겼다. 2006년, 2016년 두 차례 우승한 북한은 8년 만에 역대 세 번째 우승을 기록해 독일, 미국과 함께 역대 최다 우승국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과 맞붙은 준결승전에서 북한을 결승으로 이끈 최일선이 전반 15분 왼발 슈팅을 찼고, 공은 일본의 사라가키 우노 몸에 맞고 골대로 들어갔다. 이로써 최일선은 총 6골의 골로 이번 대회 득점왕에 올랐다. 북한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부터 결승전까지 7경기를 모두 이기며 25골을 득점하고 4골만 내줬다.

김명진 인턴기자 audwlsk@

영화마케팅사협회장에 방소영 대표




영화마케팅사협회(KFMA)의 제6기 신임 회장으로 위티 방소영〈왼쪽 사진〉 대표, 부회장으로 플래닛 김종애 대표가 선출됐다.

23일 KFMA에 따르면 새로 선출된 6기 회장단의 임기는 2026년 6월 말까지 2년간으로, 임기 동안 협회 회원사 인권 보호 및 대내외 업무, 대언론 활동 등의 역할을 한다.

송석주 기자 ssp@

입센코리아, 양미선 대표이사 선임



입센코리아는 신임 대표에 양미선〈사진〉 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사업부 전무가 선임됐다고 23일 밝혔다.

양미선 신임 대표는 20여년 간 제약업계에서 활동한 마케팅 전문가로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이전에는 길리어드사이언스, 한국MSD, 바이엘코리아 등을 거쳤다. 양 대표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켈리경영대학원 MBA와 성균관대학교 Executive MBA를 취득했다.

한성주 기자 hsj@

SC제일銀, 리버풀 레전드 초청 VIP고객과 함께 갈라디너 개최



왼쪽부터 박종복 SC제일은행장, 패트릭 베르게르 리버풀FC 레전드, 개러스 위어 주한영국대사관 부대사. 사진제공 SC제일은행

SC제일은행은 VIP 고객과 임직원 등 200여 명과 함께 '리버풀 레전드와 함께하는 VIP 갈라디너' 행사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1990년대 후반 리버풀FC의 대표적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한 레전드 패트릭 베르게르(Patrik Berger)가 초청돼 고객 및 임직원과의 대화 시간을 비롯해 사인회와 포토타임을 가졌다.

영국식 코스 요리로 이뤄진 만찬과 함께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 무대에서 명성 높은 소프라노 임선혜와 베이스 길병민의 공연으로 고객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특별한 경험을 전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부음

▲나정길 씨 별세, 박종임 씨 남편상, 나건태·경태(여의도연구원 박사)·이진 씨 부친상 = 22일, 파주시 메디인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4일 오후 2시, 031-570-9093

▲김학록 씨 별세, 김성현(KB증권 대표이사) 씨 부친상 = 22일, 광양장례식장 특실, 발인 25일 오전 8시, 061-761-5500

▲이병순 씨 별세, 이기동(전주시의원) 씨 모친상 = 23일, 전주시티장례문화원 VIP 202호, 발인 25일 오전, 063-274-4444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직제개편) △민원운영팀장 최난주 △지능정보화기획팀장 김순영 △국제개발협력팀장 남호재

◆방송통신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행정법무담당관 좌미애 ◇과장급 및 팀장급 전보 △미디어혁신지원과장 김혜숙 △방송지원정책과장 이훈식 △지역미디어정책과장 김미정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전혜선 △조사기획총괄과장 조주연 △통신시장조사과장 심아미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 성재식 △방송광고정책과장 권희수 △편성평가정책과장 김성욱

◆야놀자클라우드 ◇임원 선임 △최고재무책임자 문병덕

◆블록미디어 △최고사업개발책임자 제임스 정

◆커리어케어 △출판본부장 박진희

◆리더스인덱스·리더스팩트 △최고콘텐츠책임자(CCO) 겸 편집국장 강미혜

조동근 칼럼

의료파국 치닫게 한 윤 정부 '무오류 독선'



명지대 명예교수·경제학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종교적·정치적 확신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무오류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론(theory)은 법칙(law)이 아니기에 늘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따라서 이론적 귀결은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반증가능성'을 닫아 놓으면 과학이 아니다. 같은 논리로 오류가능성을 닫아 놓으면 '정책'일 수 없다.

한국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추석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20%대로 최저를 기록했다. 부정적 평가요인으로는 '의대정원 확대'가 18%로 제일 높다. 하지만 놀랍게도 긍정적 평가요인으로 외교(15%)에 이어 의대정원 확대(14%)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수험생, 학부모, 입시 학원가는 의대 증원을 열렬히 환영한다. 의대 증원은 국민을 두 쪽으로 갈랐다.

의대증원의 최대 논거는 한국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현재 인구 1000명당 한국의 의사수가 2.5명으로 프랑스 3.2명, 독일 4.5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에 비해 적다고 한다. 하지만 '양적 지표'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회피가능한 사망률'은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회피가능한 사망률은 질병 예방과 적절한 치료로 막을 수 있는 사망을 의미하며,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나타낸다. 한국의 회피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42명으로, OECD 평균 239.1명보다 훨씬 낮다. 한국의 1인당 연간 진료 횟수는 2021년 기준 15.7회로 OECD 평균 6.8회보다 크게 높다. 한국의 의료문제 본질은 '의사 수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지역·필수의료 파행'도 의대증원의 최대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문제도 '시스템의 문제'로 의대 입학정원이 부족해서 유발된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의사가 부족한 진료과목은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이다. 정부의 요구대로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면 의사가 부족한 진료과목으로 미사일이 유도되듯이 의사자원이 그쪽으로 배분될까?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낮은 의료수가 그리고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에 기인한 것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 의사가 가지 않는 이유는 환자들이 지역의료 이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비근한 사례로 이재명 대표도 지역응급의료 서비스를 거부하고 헬기 편을 통해 서울로 향했다. 2000년 건강

한국 의사수 적지만 질적 효율 높아
필수의료도 수가·법적 뒷받침 문제
핵심인재 '의대쏠림' 진정 해법없나

보험 통합 이후 권역별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면서 지역의료를 기피하는 풍조가 구조화됐다. 이 역시 의사 수 부족과는 거리가 멀다.

의정(醫政) 갈등은 정부에 의해 촉발된 측면이 강하다. 지금도 "왜 매년 2000명씩 1만 명의 의사를 늘려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르라는 식이다. '그동안 의사가 정부를 무릎 꿇게 했다'는 식의 언론플레이는 이번에는 '의사 차례'라는 암묵적 으름장으로 읽힌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의사파업을 '전염병 창궐'로 인식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 5월 '외국의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문제를 풀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잦아들지 않자, 올해는 "예정대로 (진통 끝에 1497명으로 조정) 선발하고 2026년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이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신입생을 아직 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부터 원점 재검토를 못 할 이유는 없다. 결국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쳤다. 그러면 2026년에 입학정원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만큼 감축할 수 있을까. 어림도 없다. 2026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연결되어 입학정원 조정은 불가능할 것이다.

각국은 미래 신산업을 주도할 핵심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한민국만 고급인력이 '피부미용, 성형외과, 도수치료'로 빠지는 것이 옳은가 깊이 고민해야 한다. 그러다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한국만 패자(loser)로 남을까 심히 우려된다.

'KBS 수신료' 획기적 인식 전환을

황근의 시선



선문대 교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지난 주말 공영방송과 관련된 주제로 학술대회가 있었다.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공영방송과 관련된 구조 및 재원 등과 관련된 법·제도 논의가 벌어졌다.

방송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언론학자들과 달리 법리적 관점들은 조금 새롭게 느껴지기도 했다. 어떤 부분은 너무 현실을 모 르는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공영방송 체제가 체계적인 법적 토대 위에 구축된 것이 아니라는 괴리 현상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월 2500원, '묻지마 세금' 처럼 인식돼

이론적으로 공영방송은 공익적 책무라는 이념적 정체성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재원이 삼위일체를 이뤄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우리 공영방송은 법적 근거도 없고 명확한 정체성이나 상업방송과 차별화된 책무도 부여받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KBS 수신료는 공영방송 역할과 무관한 사실상 정치적 후원 성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전기요금에 병과되면서 강제 징수처럼 운영되어 왔다. 이 때문에 통합 관리비를 납부하는 국민들은 KBS 수신료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구나 1980년에 책정된 월 2500원이라는 액수는 그 용도조차 알 필요 없는 일종의 '묻지마 세금'처럼 인식되어 왔다.

물론 정치적 편파보도나 프로그램들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수신료 거부 여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크게 확산되지는 못했다. 월 2500원이라는 액수가 수신료를 KBS 공적 책무를 강제하는 매개체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다. 결과적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KBS가 공영방송 이념이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도 수신료 납부에 대해 강한 인지부조화를 느끼지 않았다.

한마디로 '수신료의 가치(pay for money)'라는 공영방송 존재 근거와 무관한 수신료 제도인 것이다. 수신료 분리 징수가 1년이 넘었지만 당초 우려와 달리 월 10억 원 수준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공영방송 조직이나 구성원들의 책임 의식을 이완시키고 조직 이기주의와 방만한 경영,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공영방송이 국가·사회적으로 필요한 가치재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은 수신료 분리 징수나 거부가 집단행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는 정치 병행성이 심화되고, 차별화된 공적 방송서비스 공급에 실패하게 되면 수신료 거부가 아니라 공영방송 무용론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결국 KBS 수신료가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 서비스가 국가·사회적으로 필요하고, 내가 아니더라도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가치재'라는 인식을 확보해야만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수신료가 공영방송이라는 가치재의 대가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기 위해 수신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영방송 책무와 수신료 간의 대가관계가 명확해지면, 수신료를 납부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시청자가 분명히 구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신료 대폭 인상…'공영방송 책무' 유도를

이렇게 되면 공영방송 종사자들은 수신료 납부자를 확보하기 위해 공영방송 책무에 더욱 충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 공영방송의 오랜 병폐로 지적되어 온 비대한 조직과 방만한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구책을 모색하게 될 것이고, 공적 서비스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공영방송은 다수의 국민이 자신의 필요성 여부와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공공재로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리어 분명한 공적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가치재로 접근하는 공영방송에 대한 획기적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집값 대신 실수요자 잡는 대출규제

노트북 너머



정용욱
부동산부 기자

정부의 집값 '압박 수비'가 성과를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9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6% 올랐다. 상승 폭은 전주 대비 0.07%포인트(p) 하락했다. 8월 최대 0.32%까지 치솟은 것과 비교하면 진정 국면으로도 해석된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 둔화에는 정부의 전방위 대출 규제 영향이 컸다. 2분기 이후 가파른 아파트값 상승세를 보인 서울을 시작으로 집값 오름세가 수도권 전역으로 번졌다. 이에 정부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이고 정책대출은 금리까지 올리면서 주택 수요자의 돈줄을 차단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을 지역별로 뜯어보면 정말 집값 상승세가 꺾인 것인지 의문이다. 서울 아파트값을 선도하는 서초구 반포동과 성동구 등에선 대출 규제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 사례가 쏟아진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는 전용면적 84㎡형이 지난달 2일 60억 원에 거래됐다. 평(3.3㎡)당 1억 8000만 원 수준이다. 또 성동구 '트리마제' 전용 84㎡형은 2일 40억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외곽지역에선 집값 내림세가 속속 포착된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울 외곽지역 아파트값이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16일 기준 도봉구와 구로구는 0.07%, 관악구는 0.06%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초구가 0.32% 오른 것과 비교하면 최대 5분의 1 수준의 상승률에 그쳤다.

가계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욕구를 막을 순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8월 '가계대출규제의 규제영향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대출 규제의 효과는 거시경제환경 변수들의 변화로 6개월 이후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로 6개월은 집값을 누를 수 있지만, 그 이후는 무용지물이라는 뜻이다.

'시한부 효과'의 대출 규제는 멈춰야 한다. 대출 규제로 흔들리는 것은 다주택 자산가가 아니라 주택 실수요층인 서민과 중산층이다. 주택 실수요자의 대출은 풀고, 투기성 초고가 아파트 거래를 제어할 핀셋 규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dragon@

이투데이, 말투데이

☆ 호레이스 월폴 명언

"세상은 느끼는 자에겐 비극이지만 생각하는 자에겐 희극이다."

내각 책임제를 창시한 영국 총리 로버트 월폴 경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심미안이 뛰어난 문학애호가로 런던 서쪽 교외에 스트로베리 힐이라는 고딕풍 대저택을 짓고 고딕 취미에 심취했다. 문필가인 그는 저택에 인쇄소를 설치해 그레이의 시집을 비롯한 많은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717~1797.

☆ 고사성어 / 세여파죽(勢如破竹)

기세가 매우 맹렬해 대항할 만한 적이 없는 모양이란 말이다. 진서(晉書) 두예전(杜預傳)에 나온다. 진(晋)을 건국한 사마염(司馬炎)의 명령으로 마지막 남은 삼국 중 하나인 오(吳)나라를 치기 위해 내려온 대장군 두예가 이십만 대군으로 형주(荊州)를 완전 점령하고 마지막 총공격을 위한 작전회의를 열었다. 한 사람이 계절 탓을 들어 공격을 늦추자고 건의하자 두예가 한 말이다. "지금 군사의 위엄은 이미 떨쳐져 있다. 그것은 마치 대나무를 쪼개는 것과 같다. 몇 마디 뒷가지가 칼날을 맞이하여 벌어지므로 다시 손댈 곳이 없다." 오나라는 총공격에 저항을 포기하고 모두 항복했다.

☆ 시사상식 / 호손 효과(Hawthorne effect)

개인들이 자신의 행동이 관찰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될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조정, 순화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더 이상 '땜질처방'으론 안된다

데스크 시각

이초희
부국장 겸 금융부장



"방향은 맞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많이 들어본 얘기 중 하나다. 대표적인 게 의대 정원 확대일 것이다. 누구나 동의하지만 거칠고 과격한 방식이 의료 선진국인 한국에서 "아프면 큰일난다"라는 웃픈 말까지 만들어냈다. 가야 할 방향인 것은 맞지만 '난폭운전'을 하다보니 7개월째 파행을 거듭하며 비정상 체제로 연명하고 있는 현실.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과 현장에 남아서 희생하는 의료진의 몫이다.

목숨이 촌각에 달린 급박한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최근 금융권에서도 거친 운전자(?)로 인해 대출 시장이 혼돈에 휩싸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대출 관련 시장 개입 발언을 잇따라 한 데 따른 것이다. 그의 한마디에 은행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그의 눈치를 보며 하루 아침에 내부 정책을 바꾸기에 이르렀다. 난데없이 집이 있는 사람은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전세대출이 막히게 됐다.

오락가락 정책에 가계부채 급증
대출규제에 서민 피해만 눈덩이
'빚투문화' 등 구조적문제를 봐야

서울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11월 입주를 앞두고 수분양자와 입주자들은 주요 은행들이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 적용을 각각 달리 하면서 한바탕 논란이 됐다. 당장 입주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집이 있는 사람이 자녀 교육 때문에 집에 세를 주고 다른 곳으로 전세를 얻으려 할 때 전세대출이 막혀 낭패를 본 사례도 속출했다.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등판해 정리에 나섰다. 결국 이 원장의 사과와 '은행의 자율적 관리'로 일단락됐지만 지난 두 달여 동안 대출시장은 '오락가락 메신저'에 제대로 융단폭격을 맞았다.

한바탕 요란한 소동이 끝나자 9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주춤해진 것으로 집계됐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9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4조5000억 원 안팎으로 전월 증가폭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고 자화자찬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시시각각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순식간에 뒤집힐 때마다 은행들은 바람따라 눕고, 시장의 혼란은 집 한 칸 마련해보겠다는 서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

가계부채 문제는 근본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빚내서 투자하는 문화, 저성장 고착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땜질해봤자 소용없다. 이는 마치 암 환자에게 감기약을 처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달은 긴축, 다음 달은 완화라는 식의 '언 발에 오줌 누기' 정책은 시장에서 아무도 믿지 않는다. 오락가락 정책, 눈가리기식 규제로는 가계부채라는 거대한 눈덩이를 막을 수 없다.

가계부채의 근원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값은 전달보다 1.2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8년 9월(1.84%) 이후 6년 만에 최대폭이다. 이달 셋째 주(16일)까지 26주 연속 상승세다. 아파트에 이어 빌라, 오피스텔까지 상승기류가 옮겨붙었다. 2022년 8월 이후 23개월간 하락했던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가 8월에는 전달보다 0.03%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끓어 넘치는 냄비에 뚜껑 하나 더 덮는 것일 뿐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눈앞의 수치에만 매달리는 근시안적 접근을 관둘 때가 됐다. 오락가락 땜질식 정책의 끝은 뻔하다. 실질적인 답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빛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다 익사하고 말 것이다. cho77love@

사설

한전 주가 8.43% 급락, 뭔 뜻이겠나

한국전력 주가가 어제 8%대 하락했다. 정확하게는 8.43% 급락이다. 장 초반부터 7%대 약세를 보이다 결국 8%대 하락으로 마감했다. 개장 전에 전해진 전기요금 동결 소식이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

한전은 앞서 4분기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6분기 연속 동결을 택한 것이다. 물가, 민생 불안 등을 고려한 정부 당국의 고육지책으로 봐야 한다. 역대급 폭염에 8월 전기요금이 평균 13% 올랐고, 전체 10가구 중 7가구는 지난해보다 더 많이 내게 됐다. 사정이 이런 만큼 전기요금 인상이라도 막아 민생 주름살을 덜겠다는 당국을 무작정 탓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한전의 심각한 재무상황을 방치해도 되는지는 적잖게 의문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될 수 있지 않나.

국내 에너지 공기업의 간판급인 한전은 빚더미에 짓눌려 있다. 지난 6월 말 연결기준 총부채는 202조8900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4400억 원가량 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2021~2023년 생산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공급해 43조 원의 누적 적자를 본 영향이 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전임 문재인 정부의 인위적인 전기요금 동결로 한전의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현 정부 들어 전기요금을 6차례 인상했다. 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기판매 역마진 구조가 해소됐고, 지난해 3분기 이후 4개 분기 연속 흑자 행진 중이라지만 앞날은 캄캄하다. 올해 상반기 이자 비용으로만 2조2800억 원을 지출했다. 한전 경영진은 기회가 날 때마다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당국은 이런 호소에 귀를 막고 있다. 당국은 근육 자랑을 할 게 아니라 시장이 왜 싸늘하게 반응하는지 돌아봐야 한다.

한전 경영난은 국가 대동맥인 전력망이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등이나 다름없다. 한전은 지난해 25조 원대 자구안을 발표했고, 일부 전력 시설의 건설을 미뤄 2026년까지 1조3000억 원을 절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포퓰리즘 요금제를 탈피해 제값의 요금을 받는 정상화 조치 없이 한전을 부채의 함정에서 건져낼 묘방은 없다. 기후변화에 견디기 위해, 또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전력망을 더 확충하고 송전선로 또한 늘려야 한다. 이런 비용은 또 어디서 구할 것인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 586.766테라와트시(TWh)의 전력을 소비한 세계 6위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다. 1인당 전력 소비량은 10.959메가와트시(MWh)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반면 전기요금은 낮은 수준이다. 특히 가정용은 1MWh당 130.4달러로 37개국 중 35위다. 전기요금을 급격히 올리는 것은 쉽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국민에게 에너지에 관한 사실관계만 정직하게 알려도 다 함께 답을 찾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는 대신 요금 억제에만 급급해하는 것은 전임 정부의 실책을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 갈 길이 아니다.

마음상담소

마음을 돌보는 세 줄 일기

제목: 새 남편은 안 긁어서 고마웠다. (첫째 줄) 세일만 하면 아내가 카드를 긁는다. (둘째 줄) 집을 백화점으로 만들 심산인가 보다. (셋째 줄) 그래도 새 남편은 안 긁어서 고마웠다.

제목: 팀장은 외롭다. (첫째 줄) 우리 팀 막내 직원은 나만 보면 안절부절 못하는데, 오늘은 유독 심해 보였다. (둘째 줄) 편하게 풀어주려고 농담을 건냈더니, 막내 직원 눈빛이 더욱 흔들렸다. (셋째 줄) 확실히, 팀장은 외롭다.

일본 시 문학 양식 중에 하이쿠(俳句)가 있다. 하이쿠는 단 세 줄만 사용해서 인간이 살아가며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담아낸다. 그런데 하이쿠는 시라서 아무나 쉽게 쓰지 못하지만, 산문인 일기에 적용해서 간결하게 쓰면 어떨까. 이렇게 세 줄 일기가 개발되었다.

일단, 첫 줄에는 '누가 무엇을 했다'라고 쓴다. 긴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하려면 뼈대만 발라내야 한다. 이야기를 요약하는 육하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 '무엇을'을 적는다.

두 번째 줄에는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소개한다. 첫 줄에 쓴 '누가 무엇을 했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어떤 배경이 숨어 있는지 적는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서는 두 번째 줄까지 소개한 이야기를 두고 내가 품은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적는다.

일기는 하루를 정리하는 도구다. 일기를 쓰면 하루 동안 생활하면서 품은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쉽게 정리할 수 있다. 인상적인 한 가지 사건에 집중할 수 있으니,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 내일 또 하루를 살아낼 힘을 얻는다.

글쓰기 기술은 배우기 어렵다. 하지만 인간은 뭔가를 쓰고 싶어한다. 그렇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쓰는 분량을 줄여서 부담을 확 줄이는 방법. 가볍게, 딱 세 줄로 일기를 쓰며 내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언젠가 조금 더 길게도 쓸 수 있으리라.

이재원 강점관점실천연구소장·임상사회사업가

'쟁반같이 둥근달'의 비밀

과학세상

이난영
과학 칼럼니스트



카톡 프로필을 바꾸려 휴대폰 앨범을 훑다가 오래전에 찍어 둔 달무리 사진 몇 장을 발견했다. 달무리는 빛이 대기 중 수증기나 얼음 결정을 지나면서 굴절, 즉 그 경로를 바꾸는 데서 비롯된 현상이다. 동그란 띠가 생긴 이유를 안다 하더라도, 청회색과 회갈색 구름이 차례로 달을 감싸 안은 광경은 신비롭고 몽환적이다.

재미있는 건 달 모양이다. 반달이나 초승달일 때는 달빛이 약해서 달무리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보름달이 뜰 때 '새털구름'이라 불리는 얇은 구름층이 지나가야 이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 그런데 달무리 속 보름달은 지평선에서 얼마나 높은 곳에 떠 있는가에 따라 우리가 아는 '쟁반같이 둥근' 모습을 보이거나 조금 찌그러진 원처럼 보이기도 한다.

육안으로 보는 것과 달리 실제 달은 완벽한 원형이 아니다. 가로와 세로 방향의 반경을 비교해 보면 세로 극반경이 약 2km 더 짧다. 달의 반지름이 1700km 가량으니, 달은 동그란 원을 좌우에서 아주 살짝 잡아당긴 것 같은 타원형이라 할 수 있다. 달과 관련된 오해는 이것 외에도 꽤 있다.

달의 공전궤도는 타원…근지점에서 크게 보여

그 중 하나가 달의 크기다. 정월 '대보름'이란 말도 있는 것처럼 달이 유난히 크게 보일 때가 있다. 이는 달의 공전 궤도가 타원이라는 데 기인한다. 타원이 원과 비교해 좌우로 혹은 아래 위로 얼마나 길게 뻗어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이심률(eccentricity)이란 값을 쓴다. 말하자면 원의 찌그러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인데, 달 궤도의 경우 이 값이 0.05이다. 즉, 달 궤도의 세로 반지름은 가로 반지름의 0.999배 정도 된다.

이 정도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이로 인해 달과 지구는 가까워졌다(근지점) 멀어졌다(원지점)를 반복한다. 그런데 근지점에서 다음 근지점에 이르는 시간 즉 근월점의 주기는 보름달이 뜨는 주기(삭망주기)와 이틀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런 이유로 같은 시기에 뜨는 보름달도 더 커 보이거나 작아 보인다.

달 크기가 달라 보이는 때가 또 있다. 떠오르기 시작할 때보다 한밤에 보면 달이 더 작아 보인다. 이는 폰조 착시(Ponzo Illusion) 현상으로 설명된다. 뒤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철도 레일을 따라 가로로 긴 직사각형을 움직여보면 앞에 있을 때보다 뒤에 있을 때 사각형이 더 크게 보인다. 이처럼 배경을 기초로 물체의 크기를 판단하는 착시 때문에 하루에도 달의 크기가 달리 보이게 된다.

1년에 3.8cm씩 멀어지는 달·지구 간 거리

중요한 건 실제로도 달과 지구 간의 거리가 1년에 약 3.8cm씩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달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46억 년 전에는 지구까지의 거리가 약 2만2530km였다. 하지만 현재는 이보다 약 스무 배 더 멀어진 38만km 정도로 알려져 있다. 수십 억년 뒤 언젠가 지구가 자전을 멈춘다고 한다면 달은 지구에서 더 훨씬 멀어져 있을 게 분명하다. 달이 늘 그 자리에서 뜨고 지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건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인류가 달에 첫발을 디딘 게 1969년이니 올해로 벌써 55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달의 속살이 많이 드러났다. 많은 오해(?)가 풀렸고, 새로 밝혀진 사실도 많다. 일례로 2023년 사이언스데일리(ScienceDaily)에 게재된 한 뉴스에 따르면 지구 자기권 내에서 방출되는 전자들로 인해 달에 물을 형성할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한다. 어쩌면 달에 사는 생명체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우리가 생각만큼 달에 대해 잘 알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헌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20,000원 1부 1,0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과 체코, 원전으로 하나되다

대한민국 정부와 팀 코리아의 그동안의 노력,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전산업계는 체코 원전 사업이 최종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 404개 회원사 일동

가나물상, 가온플랫폼, 강우기업, 강운테크, 거산코아트, 거상정공, 거성씨앤에스, 경남기업, 경남테크노파크, 경북대학교, 경상북도, 경성아이젠, 경성정기, 경희대학교, 계림폴리콘, 고도기술, 고려검사, 고려공업검사, 고려용접봉 창원공장, 고려정밀공업, 고려호이스트, 구주기술, 국제전기, 그리다에너지, 그린방사선, 금양그린파워, 금오중공업, 금천공업, 금호건설, 금화정수, 금화피에스시, 나일프렌트, 다온기술, 다우산업개발, 다운이엔씨, 단국대학교, 대경기술, 대경산업, 대덕, 대본테크, 대신테크젠, 대안엔지니어링, 대영정공, 대우건설, 대전테크노파크, 대진기업, 대진전력,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대한전기협회, 대한핵의학회, 데이타리얼리티, 델타아이오, 도성산업, 동국대학교, 동부, 동아건설산업, 동아HI, 동양메탈공업, 동양산전, 동원엔텍, 동은디앤피, 동인엔지니어링, 두루이디에스, 두산에너빌리티, 두우엔지니어링, 드림즈, 디씨테크, 디에스엔텍, 디자인아이엔, 디자인폼, 디자인하늘, 디케이락, 디케이이앤씨, 디티앤씨, 딥아이, 라디안, 라텍, 레이메트릭스, 레플러스, 루미맥스, 리브릿지, 리얼게인, 마이크로우라너스, 마이텍, 메츠, 무송지오씨, 무진기연, 미래와도전, 범성, 범진정밀,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충정, 베러덴예스터데이, 베스텍엔터프라이즈, 벡스코, 벤틀리시스템즈코리아, 부산광역시, 부산대학교, 부산테크노파크, 브이아이브이인터내셔날, 블루에스피, 비아이케이테라퓨틱스, 비엠티, 비전아이티, 비젼테크, 비즈, 비츠로테크, 비케이전자, 빅텍스, 삼부정밀, 삼성물산, 삼신,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삼원이엔지, 삼의공영, 삼정회계법인, 삼진공작, 삼홍기계, 삼회산업, 상림엠에스피, 상신공업, 상지상사, 새빛이엔이, 새한산업,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전기전, 서주건설, 서진메카닉스, 서진인스텍, 석교양행, 선광티앤에스, 선두전자, 선우엔지니어링, 성일에스아이엠, 성진원자력기술, 성풍솔레드, 성화산업, 세광공업, 세대에너텍, 세라정공, 세아베스틸, 세아에스에이, 세안기술, 세안에너텍, 세연이앤씨, 세이프텍, 세종기술단, 세종대학교, 솔지, 수도전기, 수산뉴텍, 수산인더스트리, 수산ENS, 수성정밀기계, 쉐카이나, 슈어소프트테크, 슈퍼플랜, 스마트파워, 스마트파워, 스탠더드시험연구소, 승진이엠씨, 시버리솔루션스, 신일전기, 신한금속, 썬테크, 아라레연구소, 아름다운환경건설, 아미텍, 아이스기술, 아이에스엠알, 아이티알, 아크론에코, 아펙스, 안국엔지니어링, 알엠에스테크놀러지, 알엠택, 앤스코, 에너시스, 에너지엔, 에너지파트너스, 에너토크, 에너토피아코리아, 에네스지, 에스에프테크놀러지, 에스케이이엔지, 에이스이앤지, 에이엔이광개토, 에이엠오토노미, 에이치엠테크, 에이치케이금속, 에이티지, 에이피이씨, 에코파워텍, 엔디케이, 엔씨코리아, 엔알텍, 엔에스이, 엔에이시, 엘에스일렉트릭, 엠씨에스텍, 엠앤디, 엠에스아이랩스, 엠에스테크이엔지, 엠티케이, 영인에너지솔루션, 영진, 영진테크윈, 영풍산업, 오라노 코리아, 오르비스, 오르비텍, 오리온이엔씨, 옥당산업, 옵티멀에너지서비스, 와이피피, 용성전기, 우광산업, 우르, 우리기술, 우진, 우진엔텍, 울산과학기술원, 원자력에너지학원, 원전해체연구소, 원텍시스템, 월성티엠피, 웨스팅하우스 한국지점, 위드텍, 유니비스 주식회사, 유니비즈컨설팅, 유니슨에이치케이알, 유니플라텍, 유림기술, 유비사이언스, 유비콘엔지니어링, 유아이티, 유엠아이, 유원테크, 유진코메탈, 유창공업, 유투엔지, 유호전기공업, 은성프린터, 이건, 이노팩토리, 이성씨엔아이, 이씨엔지니어링코리아, 이안, 이에스아이, 이케이중공업, 이투에스, 인터뱅크, 일성, 일진라드, 일진전기, 일진종합전설, 일진파워, 자오건설, 자인, 장민이엔씨, 전력거래소, 전북대학교, 정수필터레이션, 정우산기, 제스엔지니어링, 제이스코리아, 제일산업, 제주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주은에스에스, 중앙대학교, 중원엔지니어링, 지디퓨처에너지, 지성하이테크, 지아이피에스, 지에스중공업, 지엔비파트너스, 지투파워, 진영정기, 진흥테크, 창원특별시, 첨단기공, 칼만, 케이씨, 케이에스알인증원, 케이피씨엠, 코네스코퍼레이션, 코닥트, 코라솔, 코센, 코스모앤컴퍼니, 코스모전기, 코아네트, 클래드코리아, 키투웨이, 태신미디어, 태양기술개발, 태인기술, 태화산업, 테넥스 코리아, 테스토닉, 테크윈, 투어페이스앤비즈, 티보그, 티에스넥스젠, 티엔아이, 티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티유브이 슈드 코리아, 파워엠엔씨, 파워켐텍, 파워토스, 포멀웍스, 포스코이앤씨, 포스텍, 포항공과대학교 첨단원자력공학부, 프라마톰코리아, 프로코, 프론틱스, 피닉스엔지니어링, 피앤씨테크,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필모션, 하나산업, 하나원자력기술, 하이브시스템, 하이써그, 하이에어 코리아,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바란싱, 한국방사능분석협회, 한국방사선산업학회, 한국방사선안전협회, 한국방사선진흥협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비파괴검사학회, 한국수력산업협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솔루션,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에너지학회, 한국에스지에스,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한국원자력기술, 한국원자력기자재진흥협회, 한국원자력로봇, 한국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한국원자력엔지니어링,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코팅, 한국크레아, 한국표준분석, 한국표준협회, 한국프로젝트경영협회, 한국필터시험원, 한라이비텍, 한라IMS, 한미글로벌, 한빛파워, 한성산업, 한수원KNP,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한일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한전KPS, 한진, 한텍, 한화 건설부문, 합동전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단, 현대건설, 현대밸브,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이디에스, 화성금속, 화신볼트산업, 효림이엔아이, 효성중공업, 휠러스, 히트코, BHI, BNF테크놀로지, CJ대한통운, DL이앤씨, ECM TECHNOLOGIES, ENEC KOREA, GS건설, GS에너지, HD현대일렉트릭, KHPT, KINGS, KINGS 에너지정책학과, KINGS 원자력산업학과, SK에코플랜트, YG메탈

KAIF 한국원자력산업협회